2026년도

명예해양수산관 3/4분기 활동실적

2026. 10.15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목 차

Ⅰ. 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현황 ····· 1

Ⅱ. 2026년 3/4분기 활동실적 요약 ····· 2

Ⅲ. 2026년 3/4분기 명예해양수산관별 세부 보고내용 12

1. 사모아 ····· 12
2. 피지 ····· 16
3. 파푸아뉴기니 ····· 27
4. 아르헨티나 ····· 32
5. 인도네시아 ····· 41
6. 가나 ····· 50
7. 세네갈 ····· 59
8. 뉴질랜드 ····· 66
9. 모리셔스 ····· 74

[참고] 명예해양수산관 현황 및 연락처 ····· 84

Ⅰ 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현황

□ 개 요

○ **(추진 배경)** '09년부터 원양어업 거점 및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정보 수집, 현지 진출기업 지원 등을 위하여 명예해양수산관 위촉·운영

* (근거 : 원양산업발전법 제22조)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등을 명예해양수산관으로 위촉, 연안국 자료 · 정보수집 등의 임무 부여

○ **(주요 임무)** 해외 주재국의 원양·수산 관련 자료·정보 수집, 투자 환경 조사, 대한민국 국민의 연안국 투자에 대한 조언 등

□ 운영 현황

○ 원양산업 또는 수산업 종사자 등 교민 위주로 **'26년 현재 총 9개 지역**에서 **9명 활동**

○ **명예해양수산관 활동실적보고**

- 각 명예해양수산관별 활동내용을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수요자들에게 정보제공

- (**정기보고**) 명예해양수산관은 매익월 10일까지 해외수산협력센터 보고, 센터는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수시보고**) 해난사고 등 긴급 상황 및 해양수산부, 업계 요청 정보·자료에 대한 수시보고

Ⅱ 2026년 3/4분기 활동실적 요약

1. 사모아

◈ 활동실적 요약

○ (7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아메리칸 사모아 및 쿡 제도 어장 어획 실적 부진
일반·투자동향	- 제25회 FFC 연례포럼 개최 및 태평양 지역 어업 협력 강화

○ (8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아메리칸 사모아 및 쿡 제도 어장 어획 실적 부진
일반·투자동향	- 태평양 참치자원 유지 및 어업의 경제적 가치 제고 방향 - 인도네시아산 가공참치의 일본 수출 관세 철폐

○ (9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아메리칸사모아 및 쿡제도 어장 어획 현황
일반·투자동향	- IATTC 제104차 회의, 태평양 참다랑어 관리절차 채택 - 미국, 태평양 지역 IUU 어업 방지를 위해 1,700만 달러 지원

2. 피지

◈ 활동실적 요약

○ (7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해양관리혁신을 위한 새로운추진 - 피지, 남태평양 참치 어업 협력 강화 협정 지지
일반・투자동향	- 피지, 일본의 인프라 자금지원 모색 - 수바항, 15억 달러 규모 재개발 사업추진
기타사항	- 중국, 피지에 군사 훈련 사전 통보 - 태평양 지도자들, 역내 안보 리더십 지지 - 심해채굴관련 법적공백해소 요구 - 중국, 태평양국가 주권존중 재확인 - 미국 해안경비대, 피지의 해양안보 강화지원 - 일본, 안보협력 강화

○ (8월)

구분	주요 내용
일반・투자동향	- 피지해양안전청(MSAF), 160만달러 지원받아 해양기름유출 대응역량 강화 - 수바항구 정화사업시작 - 일본, 전담관 파견으로 피지세관 역량강화지원
기타동향	- 피지 연료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률 6.1%로 치솟음 - 중국 미사일 시험발사, 태평양의 여러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

ㅇ (9월)

구분	주요 내용
기타동향	- 미국, 피지 해군 해상안보 역량강화 - 피지,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 피지, 안전한 어업을 위한 선박 모니터링 기술 도입 추진 - 피지항공 연료 부족 사태, 신규 공급으로 안정화 전망 - 기후변화기금, 태평양 지역 지리·물류 여건 반영 필요성 제기 - 피지-호주 부발레연합, 대규모 신규 지원 확보 - 식품 가격 상승으로 피지 물가상승률 7.6% 기록 - 피지,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 강화

3. 파푸아뉴기니

◈ 활동실적 요약

ㅇ (7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PNG 연안 수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 PNG 수출 시장의 현실 - PNG에 대한 한국 수산 ODA 사업
일반·투자동향	- PNG 수산청장의 연임
기타동향	- 주변국 상황

ㅇ (8월)

구분	주요 내용
기타동향	- 현재 PNG 수산업이 직면한 어려움

ㅇ (9월)

구분	주요 내용
정부·업계동향	- PNG 수산청이 직면한 과제

4. 아르헨티나

◈ 대외 활동 내역

○ 아르헨티나 EEZ 운항 중 한국 원양어선 사고 대응 및 협력 방안 논의('26.08.06)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 안전처 현지 공장시설 검수('26.08.07)

◈ 활동실적 요약

○ (7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해상 전략적 동맹 - 수산/축산 수출업 관계자들과 생산조정부 장관과 면담 - 불법 조업에 대한 징역형을 촉구 - 아르헨티나 PSMA 가입 승인
기타동향	- 아르헨티나 오징어 업계의 어두운 미래 - 중국이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지로 부상

○ (8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어업수출량을 늘리면서도 여전히 손실 - 새로운 오징어 조업선을 도입하는 18개 프로젝트가 승인 - 아르헨티나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하이싱 2호에 12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 (9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남대서양을 국가안보정책 핵심으로 삼고 티에라델푸에고의 전략적가치 재확인 - 포클랜드 제도를 국가 상징으로 지정 전국에 전시할 것 - 아르헨티나 항구에서 외국선박 통제에 관한 공동어업정책회의(CFP) - 코모도로 리바다비아 항만 서비스 - CTMFM 결의안 제7/2026호: 2026년 하반기 연안 및 원양 가오리 어획 할당량 조정

5. 인도네시아

◈ 활동실적 요약

○ (7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인도네시아, 홍콩 밀수 과정에서 압수한 나폴레옹피시 1,300마리 자연 방류 - 인도네시아, 바탕 산업특구 해안・해양공간 관리 강화 - 해양을 되살리는 작은 실천, 발리 해변 정화 활동 개최
일반동향	- 인도네시아 시위・유가 상승에 따른 수산・제조업 공급망 부담 확대
기타동향	- 인도네시아 대학생 대규모 시위의 원인과 배경

○ (8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인도네시아 중대형 어선(30~200GT) 특별 연료지원 정책 발표 - 누사 페니다 해역의 해류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 - 바탐지역 랍스터 양식 시범사업 평가
일반동향	-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발표 - 독립기념일 전후 시위 가능성

○ (9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일본 수출 가공 참치・가다랑어 제품, 8월부터 0% 관세 적용 - 인도네시아, ILO 기준 적용하여 어선원 보호 강화 - 인도네시아 해조류와 젤라틴, 미국의 추가 10% 관세면제
기타동향	- 인도네시아, 전략 원자재 자체 가격 결정권 강화 - 인도네시아・중국, 광물・에너지・첨단기술・수산업협력 확대

6. 가나

◈ 대외 활동 내역

○ 명예수산관 사무소 건물 명패 및 임명장 전달식 ('26.07.13)

◈ 활동실적 요약

○ (7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해양산업 인프라 투자 확대 -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및 국제협력 - 해양・항만 디지털화 및 경쟁력 강화

○ (8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지역사회 주도형 수산자원 관리, 어자원 회복의 핵심(수산위원회) - 수산부, 어업・양식업 규정(안) 이해관계자 협의 개최 - FDA, 비위생적 어류 가공 적발 후 압류

○ (9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수산자원 위기와 여성 생계의 영향 - 유엔대표단, 농어촌 어업인 권익 강화를 위해 수산부와 회동 - 불법어업 대응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 해양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수산업 지원정책의 투명성 및 공동체 관리 강화

7. 세네갈

◈ 활동실적 요약

ㅇ (7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정부 정책 및 수산 자원 관리 강화 - 연안 어업 보호 정책 확대 움직임

ㅇ (8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연안 산업어선 조업 제한 확대 추진 - 생산 동향
기타동향	- 유해 송환

ㅇ (9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해양 가두리 양식 도입 - 수산 정책 AU 표준화 - 세네갈 - 이집트 수산 협력

8. 뉴질랜드

◈ 활동실적 요약

ㅇ (7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뉴질랜드 수산물 수출 3% 감소·2026~2028년 정체 전망 - 제11회 Seafood Stars Awards 개최·쿼터관리제도(QMS) 40주년 기념(호재)

ㅇ (8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2026년 10월 어획한도(TAC) 조정검토 - 18개 어종 대상, 상업적 파급 효과 주목 - 수산법 개정안 총선 이후로 연기 - 저인망(bottom trawling) 규제 논쟁 지속 - 오타고반도 자망(set net) 어업 영구 금지 확정 - 호이호(노랑눈펭귄) 보호 조치

ㅇ (9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정부, 어업관리 규제 중복 해소 방안 발표 - 업계 환영 - 스내퍼 방류폐사 연구 발표 - 레저어업 관리 강화 논의 점화 - 스튜어트섬 대규모 연어양식장(Hananui) 승인 - 뉴질랜드 연어 생산량 두 배 규모

9. 모리셔스

◈ 활동실적 요약

○ (7월)

구분	주요 내용
기타동향	- IOTC 어업규제 및 보존관리 강화 - 전자감시·어획보고 등 수산관리 디지털화 - 항만국 통제 및 조업·입항 관리 강화 - 모리셔스 및 서남인도양 수산·해양협력 확대

○ (8월)

구분	주요 내용
기타동향	- EU-세이셸 참치 조업협정 갱신 - IOTC에 환경단체 참여 확대 - 모리셔스-세이셸, 396,000㎢ 대륙붕 공동관리 - 모리셔스 Blue Economy 투자 본격 확대

○ (9월)

구분	주요 내용
기타동향	- 화물취급공사(CHC) 포트루이스 항만 27억 루피 투자 - 모리셔스 어획량 5,000톤 → 15,000톤 확대 추진 - 세이셸 수산협정 의정서

Ⅲ 명예해양수산관별 보고 내용

1. 사모아

◈ 7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Ann Fishing Company Ltd.	LadyAnn 2			Pagopago	

나.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 격	유종
2026.07.01.	Clipper Oil (American Samoa)	4.57 USD/L	Disel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가다랑어	라운드	2,800 USD/T	
황다랑어	라운드	1,500 USD/T	

라. 해양·수산업 동향

□ 아메리칸 사모아 및 쿡 제도 어장 어획 실적 부진

○ 아메리칸사모아 및 인근 쿡제도 어장에서 날개다랑어는 평균 0.5톤, 황다랑어는 평균 0.3~0.5톤을 어획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어획량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마. 일반·투자 동향

□ 제25회 FFC 연례포럼 개최 및 태평양 지역 어업 협력 강화

○ 태평양 지역의 어업장관, 고위 관계자 및 어업종사자들이 제25회 연례포럼(FFC)회의 개막식을 개최. 참석자들은 지역 어업의 미래를 논의하고 태평양 최고의 자원인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 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임.

◈ 8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Ann Fishing Company Ltd.	LadyAnn 2			Pagopago	

나.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 격	유종
2026.08.01.	Clipper Oil (American Samoa)	4.6166 USD/L	DISEL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가다랑어	라운드	2,800 USD/T	
황다랑어	라운드	1,500 USD/T	

라. 해양·수산업 동향

□ 아메리칸 사모아 및 쿡 제도 어장 어획 실적 부진

○ 아메리칸사모아 및 인근 쿡제도 어장에서 날개다랑어는 평균 0.5톤, 황다랑어는 평균 0.3~0.5톤을 어획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어획량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마. 일반·투자 동향

□ 태평양 참치자원 유지 및 어업의 경제적 가치 제고 방향

○ 태평양 서부 및 중부 지역은 주요 참치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태평양도서포럼어업기구(FFA)는 역내 수산업의 경제적 이익 확대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FFA의 2024~2025년 보고서에서는 태평양 지역의 주요 참치자원 및 어업 관련 동향을 다루고 있음.

□ 인도네시아산 가공참치의 일본 수출 관세 철폐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 8월 1일부터 UFPA(미·인도네시아 무역협정)에 따라 일본으로 수출되는 가공참치에 0% 관세가 적용된다고 발표함. (ANTARA출처)

◈ 9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Ann Fishing Company Ltd.	LadyAnn 2			Pagopago	

나.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 격	유종
2026. 08. 01.	Clipper Oil (American Samoa)	4.9305 USD/L	DISEL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가다랑어	라운드	$2,800 M/T	
황다랑어	라운드	$1,500 M/T	

라. 해양·수산업 동향

□ 아메리칸사모아 및 쿡제도 어장 어획 현황

○ 아메리칸사모아 및 연근해 쿡제도 어장에서 날개다랑어는 평균 약 0.5톤, 황다랑어는 평균 약 0.3~0.5톤을 어획하였으며, 전반적인 어획량은 매우 부진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마. 일반·투자 동향

□ IATTC 제104차 회의, 태평양 참다랑어 관리절차 채택

○ 세계자연기금(WWF)은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개최된 미주참다랑어위원회(IATTC) 제104차 회의에서 태평양 참다랑어 관리절차가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음. WWF는 이번 결정이 세계적으로 가치가 높고 역사적으로 자원 고갈이 심각했던 태평양 참다랑어의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함. (출처WWF)

□ 미국, 태평양 지역 IUU 어업 방지를 위해 1,700만 달러 지원

○ 미국은 태평양 도서국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를 위해 1,7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함. 미국 국무부는 태평양제도포럼(PIF) 회의에서 중국의 IUU 어업 대응을 포함해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관여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발표함. (출처; Talanei)

2. 피지

◈ 7월 보고서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 07. 10.	TOTAL	2.05 USD/L	MGO	내주변동

나.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ALBACORE	10kg상	$2,800/ ton	로인가공용(PAFCO)

다. 해양・수산업 동향

□ 해양관리혁신을 위한 새로운 추진

○ 피지는 블루 프로스페리티 피지(Blue Prosperity Fiji) 프로그램을 통해 웨이트연구소(Waitt Institute)와 해양 보존 및 지속 가능한 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음. 양측은 피지의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가속화하고 해양면적의 30%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100% 지속 가능한 해양관리 달성, 해양재정 개선, 이행자금 확보 및 역내 해양외교 강화 등을 주요 우선순위로 제시함. 타부야 정보・환경・기후변화부 장관은 효과적인 해양 거버넌스를 위해 강력한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해양공간계획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함. 웨이트연구소는 피지의 해양 관련 우선순위와 지속 가능한 해양경제 발전을 지속 지원할 계획임.

□ 피지, 남태평양 참치 어업 협력 강화 협정 지지

○ 피지 내각은 남태평양 날개다랑어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쿡 제도, 니우에, 사모아, 통가 등 태평양 도서국과 지역협력 강화 양해각서(MOU) 체결을 승인함. 해당 협정을 통해 참치어업 관리 분야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지역 차원의 옹호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추진할 계획임. 또한

서태평양 및 중앙태평양 수산위원회(WCPFC) 등 주요 지역·국제 수산협상에서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남태평양 날개다랑어는 피지와 태평양 지역의 주요 수산자원으로, 고용과 경제성장 및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어, 참여국들은 지역협력과 과학에 기반한 어업관리를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역내 공동 이익을 확보할 계획임.

라. 일반·투자 동향

□ 피지, 일본의 인프라 자금지원 모색

○ 피지는 공공서비스 개선과 국가발전을 위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일본의 재정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공공기업부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대표단은 교통, 수자원, 정보통신기술(ICT), 항만, 폐기물 관리 등 분야의 협력 및 투자 가능성을 논의함. JBIC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대출, 지분참여, 보증 등 다양한 자금지원 방식을 설명했으며, 피지는 국제금융과 기술 전문성을 활용해 장기 인프라 계획과 공공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추진할 계획임.

□ 수바항, 15억 달러 규모 재개발 사업추진

○ 피지정부는 약 15억 달러 규모의 수바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년간 항만 수용능력 확대와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피지를 태평양 지역의 주요 환적·물류 허브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에스롬 이마누엘 재무부 장관은 현재 수바항이 수용능력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현대적인 항만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며, 사업을 통해 5% 이상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사업 재원은 미국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의 보조금을 비롯해 호주 정부, 호주 태평양 인프라 금융기구(AIFC), 다자간 기관 및 피지국민연금기금(FNPF) 등의 지원과 투자를 통해 마련할 예정임. 수바항 재개발은 피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사업으로, 향후 무역 및 물류 성장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될 전망임.

마. 기타 동향

□ 중국, 피지에 군사 훈련 사전 통보

○ 피지 정부는 중국이 7월 5일 태평양 지역에서 실시한 군사훈련에 앞서 훈련 계획을 사전 통보했으며, 중국 측은 해당 훈련이 일상적인 군사훈련으로 특정 태평양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밝힘. 피지는 태평양을 평화의 바다로 유지하기 위해 대화, 투명성, 상호 존중 및 국제법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라로통가 조약에 대한 지지와 역내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존중을 재확인함. 또한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태평양 지역을 위해 지역·국제 파트너들과 건설적인 협력을 지속할 방침임.

□ 태평양 지도자들, 역내 안보 리더십 지지

○ 앤서니 알바네세 호주 총리는 태평양 안보와 역내 안정은 태평양 국가들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함. 수바에서 열린 피지·호주 간 부발레 파트너십(Vuvale Partnership) 관련 평화의 바다동맹(Ocean of Peace Alliance) 협정 체결식에서 양국 간 신뢰와 공동책임을 기반으로 한 역내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세계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지속적인 역내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힘. 또한 해당 동맹을 미래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로 평가함.

□ 심해채굴관련 법적공백해소 요구

○ 피지 사회복지협의회(FCOSS)는 심해채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예조치 도입을 촉구하며, 피지가 국제적으로 심해채굴 유예를 지지하고 있음에도 국내법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있다고 지적함. 특히 현행 광업법상 해저탐사허가가 가능해 향후 심해채굴 등 광업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FCOSS는 법적 보호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해안공동체와 전통어장 및 해양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관습해양 지역 관련 법안과 광업법 개정을 촉구하고 해양자원 관련 정책 결정에서 환경보호와 지역사회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 태평양국가 주권 존중 재확인

ㅇ 왕위안 주태평양 중국 대사대리는 중국이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주권과 독립적인 결정을 존중하며, 역내 관계를 지정학적 경쟁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또한 태평양 국가들이 각자의 전통적 관계와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파트너 및 안보협정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한다고 밝힘. 중국의 역내 협력은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태평양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태평양 지역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올해 팔라우에서 개최되는 태평양도서국포럼 정상회의에 대화 파트너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미국 해안경비대, 피지의 해양안보 강화지원

ㅇ 피지와 미국은 미국 해안경비대 함정 해리엇 레인(Harriet Lane)호의 피지 방문을 계기로 해상범죄 대응 및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함. 이번 방문은 해안경비대의 블루 퍼시픽(Blue Pacific) 작전의 일환으로, 수색·구조, 해상법 집행, 환경보호 등 임무 수행과 함께 마약밀매 등 불법활동에 대한 대응 및 태평양 해양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함. 미 해안경비대는 피지해군·피지경찰·수산청 등 해양기관과 협력해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피지 해양법 집행을 지원할 예정임.

□ 일본, 안보협력 강화

ㅇ 일본은 공식안보지원(ODA) 체계를 통해 피지의 안보 및 개발 우선순위를 지원하고 피지군(RFMF)의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히로시 타지마 주피지 일본대사는 페니오니 날리바 피지육군 참모총장과의 면담에서 순찰선 제공을 통한 피지의 해양 역량 강화와 의료분야 지원, 호주와 협력한 피지 제3보병연대 본부 지원 계획을 설명함. 날리바 총장은 일본 육상자위대의 역량 강화 지원, 특히 의료분야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양국 간 국방·안보 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8월 보고서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8.10.	TOTAL	1.85 USD/L	MGO	내주변동

나.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ALBACORE	10kg 상	$3,000/ ton	로인가공용(PAFCO)

다. 일반・투자 동향

□ 피지해양안전청(MSAF), 160만달러 지원받아 해양기름유출 대응역량 강화

ㅇ 일본 정부는 약 160만 달러 상당의 특수 기름유출 대응장비를 피지에 지원해 피지 해양안전청의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연안환경 보호 역량을 강화함. 히로시 타지마 주피지 일본대사는 최근 수바항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피지의 비상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이번 지원이 양국의 태평양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공동의지를 반영한다고 밝힘. 피지 교통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국가적 대응능력을 높이고 연안해역, 산호초, 맹그로브, 어업 등 주요 해양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재난 대비 및 해양복원력을 강화할 것으로 평가함. 피지에서는 매년 평균 3건의 해양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해안지역사회와 어업・해양경제 보호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수바항구 정화사업시작

ㅇ 수바항구 내 방치 선박 제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대규모 항구 정화 프로젝트의 1단계로 방치 선박의 세척 및 제거가 추진됨. 방치선박제거 프로젝트 관리위원회는 캡틴 조나단 스미스 기금의 지원을 받아 1단계 작업을 승인했으며, 이를 통해 항구 내 안전위험을 해소하고 해양생태계 보호 및 항구환경 복원을 추진할 계획임. 피지항만공사(Fiji Ports Corporation Limited)가 제거작업을

감독하며, 선박은 엄격한 환경 및 안전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침몰 처리할 예정임.

□ 일본, 전담관 파견으로 피지세관 역량강화지원

○ 피지국세청(FRCS)은 일본 재무성 관세국과 세관업무 강화 및 역량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일본으로부터 현지 기술지원을 받게됨. 협정에 따라 일본세관 담당연락관이 피지에 파견되어 기술 협력의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FRCS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피지의 수요에 맞춘 교육·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임. 이번 협력을 통해 FRCS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모범사례를 도입해 피지의 세관업무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계획임. 또한 양국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태평양 지역의 세관 역량강화와 세관 기준·관행의 조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할 방침임.

라. 기타사항

□ 피지 연료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률 6.1%로 치솟음

○ 피지의 6월 물가상승률은 6.1%로 5월(3.9%) 및 전년 동월(-1.2%) 대비 크게 상승함. 피지 중앙은행은 연료·가스 가격 상승과 에너지 피지(Energy Fiji Limited)의 연료할증료 시행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해당 요인들이 물가상승률의 약 4.5%p를 차지했다고 설명함.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연료가격·운송비·생산비용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으며, 현재 유가 수준이 유지될 경우 연말까지 물가상승률이 6% 이상을 유지할 가능성을 경고함. 관광산업은 여전히 경제를 견인하고 있으며, 6월 관광객 수 회복으로 상반기 누적 관광객은 460,62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함. 반면 목재·금·사탕수수·제조업 등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소비 활동도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임. 투자활동은 신규 투자대출 및 건설 관련 수입 증가에 힘입어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연료·운송비 상승, 노동력 부족 및 선거를 앞둔 불확실성 등이 향후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한편 풍부한 유동성(7월 29일 기준 약 20억 달러)과 낮은 대출금리가 민간부문 신용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견고한 금융시스템은 국내외 경제 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고 있음.

□ 중국 미사일 시험발사, 태평양의 여러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

○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은 중국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궤적이 일부 회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통과하면서 역내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힘. 바론 와카 PIF 사무총장은 미사일 궤적이 여러 태평양 국가의 상공을 지나는 문제를 심각한 지역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회원국들이 이미 시험발사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함. 이번 사안은 태평양 국가들이 자국 영토 밖에서 발생하는 역내 군사활동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부각시킨 것으로 평가됨. PIF는 18개 회원국의 개별 입장과 우려를 종합해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공동 입장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모든 회원국의 입장을 반영한 공동성명 발표를 위해 협의를 지속하고 있음.

◈ 9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에스엔비 인터네셔널	SNB 201	2026-08-13/ 2026-09-14	선원교체, 선박수리	수바항	참치독항선
KDH 코리아	KAKEHASHI 9	2026-08-25/ 2026-08-31	정비	수바항	참치독항선
에스엔비 인터네셔널	SNB 101	2026-09-02/ 2026-10-02	선원교체, 선박수리	수바항	참치독항선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 9. 10.	TOTAL	1.76 USD/L	MGO	내주변동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ALBACORE	10kg상	$3,100/ ton	로인가공용(PAFCO)

라. 기타 동향

□ 미국, 피지 해군 해상안보 역량 강화

○ 피지 해군은 미국 국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보트 진입로와 7m급 고무보트 3척을 지원받아 해역 순찰·감시 및 해양 영역 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역량을 강화함. 크리스티나 카발로 주피지 미국 대사는 이번 지원으로 불법어업 단속과 태평양을 통한 마약 밀매업자 차단 능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힘. 양국은 법치주의, 주권 및 영토보전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으며, 피지 국방 및 재향군인부 장관 피오 티코두아두아는 이번 지원이 피지 해역 보호, 지역사회 지원 및 인명 구조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피지-미국 간 해양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양국의 실질적인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힘.

□ 피지,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 피지는 인구감소, 고령인구 증가, 노동 가능 연령층의 해외 이주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인구정책 2026/2035를 추진하고 있음. 피지 인구는 2017년 884,887명에서 2035년 약 863,737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약 49,000명에서 약 100,0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피지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와 공공서비스에 부담으로 이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적자원 투자·농촌경제 강화·회복력 있는 지역사회 구축 등을 통해 인구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한다는 방침임. 농촌해양개발부 차관 조베사 보체아는 국가인구정책 2026-2035를 통해 인구변화에 대비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2035년까지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회복력 있는 인구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밝힘.

□ 피지, 안전한 어업을 위한 선박 모니터링 기술 도입 추진

○ 피지는 연안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해상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선박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하고 있음. 피지 수산부는 유엔 우주사무국 산하의 우주기반 재난관리 및 긴급대응정보 플랫폼인 UN-SPIDER와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은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의 지원을 받아 일본 기업인 오션 솔루션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인 트리톤 스피어(TS3)를 중심으로 진행됨. TS3는 소규모 연안 선단을 대상으로 설계된 시스템으로, 외부 배선 없이 태양광을 이용해 작동하며 기존 표준 선박모니터링 시스템이 시간 단위로 위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과 달리 30초마다 GPS 위치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이번 협력은 원격감지 및 우주기반 기술을 활용해 피지와 더 넓은 태평양 지역에서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피지항공 연료 부족 사태, 신규 공급으로 안정화 전망

○ 피지항공 등 항공사들이 이용하는 나디 국제공항의 항공유 부족 사태가 신규 연료 물량 도착으로 해소될 전망임. 관광부 장관 겸 부총리 빌리아메 가보카는 신규 연료 공급으로 공항의 연료 수급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힘. 최근 항공사들은 나디 도착 전 연료 보충을 요구하는 항공정보공보(NOTAM)를 전달받았으며, 지난주에는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등 일부 항공사가 연료 제한으로 누메아로 회항하기도 했음. 정부는 이번 부족사태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신규 연료 수송이 완료되면 이달 말까지 공급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함. 이번 사태는 중동 지역 연료 위기 이후 항공사들의 정상 운항 재개로 항공유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설명됐으며, 피지항공은 제한조치 기간에도 안전운항을 유지해 국가 및 응급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했다고 밝힘.

□ 기후변화기금, 태평양 지역의 지리·물류 여건 반영 필요성 제기

○ 피지 정부와 국제기구는 현행 기후재정 모델이 피지 및 태평양 지역의 지리적·물류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시벤드라 마이클 환경기후변화부 상임차관은 획일적인 기후재정 접근방식이 태평양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며, 개발협력 파트너들에게 지역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구조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함. IUCN도 기후회복력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과 실제 이용 가능한 자금 간 격차가 크다고 지적하며, 기후적응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한 자금조달이 여전히 주요 과제라고 설명함. 이에 따라 각 국가와 지역사회의 고유한 필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후재정 및 자금조달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피지-호주 부발레연합, 대규모 신규 지원 확보

ㅇ 피지와 호주의 부발레연합(Bulava Partnership)을 통해 향후 10년간 안보・보건・인프라・경제개발 분야에 총 15억 달러 규모의 호주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 피지 총리실은 이번 지원이 기존 호주의 피지 지원 규모를 거의 두 배로 확대해 피지의 주권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안보 및 경제협력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지원 분야별로는 국제범죄・불법마약 대응 및 경찰본부 건설에 2억 8,400만 달러, 보건 분야에 1억 5,800만 달러, 해양 인프라・기후변화 적응 등 국가 건설 인프라에 2억 2,800만 달러의 보조금과 5억 5,000만 달러의 대출, 디지털 전환에 1억 4,6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임. 또한 인적 교류・교육 협력을 확대해 피지 국민의 호주 체류 및 복수입국비자 신청을 지원하고, 2029년부터 피지 학생들이 호주 대학에서 호주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학업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파트너십을 추진할 예정임. 양국은 태평양 도서국 포럼 및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해양평화센터 설립에도 3,9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부발레연합 협상은 지난해 11월 시작돼 올해 4월 22일 마무리됨.

□ 식품 가격 상승으로 피지 물가상승률 7.6% 기록

ㅇ 피지의 생활비가 여전히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8월 물가상승률이 7.6%를 기록함. 피지 통계청 최신 자료에 따르면 8월 물가는 7월보다 0.1% 소폭 하락함. 부문별로는 운송비가 월간 기준 4.0% 하락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으며, 이는 주로 연료 및 부품 가격 하락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주거비용은 0.7%, 주류・담배 등은 0.9% 하락함. 반면 식품가격은 2.2% 상승하며 물가 상승을 주도함. 통계청에 따르면 8월까지 12개월간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1.0%를 기록함.

□ 피지,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 강화

ㅇ 피지는 국가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해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모니터링 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음. 피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7%가 폐기물 부문에서 발생하며, 주요

배출원인 메탄은 매립지, 하수처리시설, 산업시설 및 지역 농장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환경기후변화부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개발협력 파트너 등이 참석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기후 및 청정공기연합과 청정공기 정책센터의 지원을 받아 모니터링·보고·검증(MRV) 체계 개선을 추진함. 이를 위해 모니터링 프로토콜과 지표, 기관별 책임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배출량 감축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해 NDC 3.0 폐기물 부문 목표 달성을 지원할 계획임.

3. 파푸아뉴기니

◈ 7월 보고서

가.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6. 7. 8.	TWL Logistics Ltd	6월 K5.4719=USD 1.2411/L (부가가치세 포함X), 7월 K4.6064=USD 1.0497/L (부가가치세 포함X)	Diesel

나. 해양·수산업 동향

□ PNG 연안 수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 현지 수산청 기획팀 연안어업 개발 담당자 Mr. Terrence와 7월 3일 면담을 갖고,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견을 전달함.

○ 수산청의 연안어민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하고 상업적으로 연계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국 내 수산물 시장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제안함. 이에 대해 Mr. Terrence는 해당 제안을 수산청 내 실질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단계적인 검토 및 추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PNG 수출 시장의 현실

○ 7월 2일 중국 GNCCC가 수산청을 방문해 현지 기업의 바닷가재(Penalirus Ornatus) 수출 관련 설비 및 운영체계를 조사함. 이번 방문은 현재 시행 중인 해당 품종의 수출 금지조치 해제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방문 결과 및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후 보고할 예정임.

○ 일본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하는 GOPPF의 새우 수출은 2025년 이후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PNG 수산물 수출의 주요 산업이었던 수산업이 위축되고 있으며, 현지 수산업 역시 지속적인 경쟁력 약화와

경영 악화 등 상당한 위험에 직면한 상황임.

ㅇ 산업기반이 미흡한 PNG 자국 수산업은 인력 수급난과 노후어선 등 구조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점차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자국 수산업의 쇠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음.

□ PNG에 대한 한국 수산 ODA 사업

ㅇ 지난해 말 언급된 ODA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나 후속 조치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명수관의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한 상황임.

ㅇ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으로부터도 해당 ODA 사업과 관련한 별도 연락이나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가 없으며, 현재까지 수산부 내 담당자조차 확인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소통 및 협력체계가 미흡한 상황임.

ㅇ 해당 사업이 중단된 것인지, 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이 없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다. 일반·투자 동향

□ PNG 수산청장의 연임

ㅇ 2026년 4월 임기가 만료된 Mr. Justin Ilakini 수산청장은 최대 2회까지 연임이 가능해 연임을 신청했으나, 국가행정위원회(NEC)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산청장 인선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수산청의 일부 기능과 업무 추진이 사실상 정체된 것으로 보임.

ㅇ 한편 NFA(National Fisheries Authority)가 수산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소문이 제기되는 등 기관 운영과 관련한 혼선이 있었으나, 수산청장의 연임이 이달 초 확정됨에 따라 해당 조직 개편설은 사실상 해소될 것으로 보임.

ㅇ 현재 수산청장 임명이 관보(Gazette)에 공식 공시됨에 따라 청장 인선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산청 조직과 업무가 정상화된 것으로 보임.

라. 기타 동향

□ 주변국 상황

ㅇ 남태평양 국가들의 PNG 관련 수산 동향은 현재까지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임. 다만 인도네시아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Western・Gulf 지역의 해상 순찰이 강화된 것으로 파악되며, 국경지역에서는 여전히 인도네시아인의 불법 사업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음.

ㅇ 기존에는 인도네시아 불법어선이 독항선 중심으로 조업했으나, 최근에는 모선과 다수의 소형어선을 함께 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연안 가까이까지 진입하는 등 불법조업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됨. 최근 수산청 경비정 단속 과정에서 모선과 소형어선 및 인도네시아 어부 등 약 80명이 검거되었으며, 현지 수용시설 부족과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PNG 정부도 사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8월 보고서

가.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6. 8. 8.	TWL Logistics Ltd	7월 K4.6064=USD 1.0497/liter (부가가치세 10% 포함 안됨) / 8월 K5.1178=USD 1.1616/liter (부가가치세 10% 포함 안됨)	Diesel

나. 기타 동향

□ 현재 PNG 수산업이 직면한 어려움

ㅇ 국제 경기 둔화와 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의 경제상황 악화로 수산물 가격이 품종별로 약 20~50% 하락함. 중국 수출이 금지된 활어 바다가재 역시 약 30%의 가격 하락이 발생함.

ㅇ 유가 상승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미・이란 간 갈등에 따른 유류비

상승이 수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일부 PNG 업체는 사업 존폐 위기에 직면함.

- ㅇ 자국민 수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지원 부족으로 숙련 선원 확보가 어려워 외국인 선원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산업 인프라 부족으로 수산업 운영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 ㅇ 최저임금 및 유류비 인상에 더해 국내·국제 물류비와 포장자재 비용까지 상승하면서 수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악화되어 일부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 ㅇ 노후 선박 증가로 조업 가능일수가 감소하고 수리·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한 상황임.
- ㅇ 수산청의 정책 및 규제가 산업의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 역량 부족과 부정부패 등으로 자국 수산업의 경쟁력과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임.
- ㅇ Daru 및 Western Province 지역 바다가재 산업에 중국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자국 수산업이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2026년 중국인 기업에 대한 라이선스 연장이 불허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ㅇ 수도 Port Moresby에 수산 전용 부두가 없어 자국 수산업의 운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열악해진 부두 시설과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9월 보고서

가.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6. 9. 8.	TWL Logistics Ltd	9월 K5.5092=USD 1.2419/liter (부가가치세 10% 포함 안됨)	Diesel

나. 정부·업계 동향

□ PNG 수산청이 직면한 과제

ㅇ PNG 수산청의 수입은 대부분 외국 원양어선의 조업일수 판매를 통한 참치 어획 관련 VD 판매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어선의 라이선스 수입은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국내 수산업 진흥사업의 방향과 규모 역시 외국 국적 원양어선 관련 수입에 크게 좌우되는 상황임. 그러나 현재는 재원 확보 단계부터 중앙정부의 개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산청장이 주창한 연안 어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산청 운영도 이전보다 검소한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보임. 또한 수년간 추진해온 FCL(수산청 공기업)을 통한 사업 역시 자체 법규 마련 및 중앙정부 승인이 지연되고 있음. 2027년 총선을 앞두고 현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위한 자금 배분을 우선하는 가운데, 고산지대(Highlands Region) 출신 국회의원의 영향으로 연안 어업 발전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어 2026년에도 관련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ㅇ 이전 보고서에서 언급된 내용의 연장선으로, 조업선·운반선·가공선 등의 선박이 극히 부족해 PNG 자체적으로 연안어업 관련 사업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그러나 연안어업 문제를 PNG만의 과제로 보기보다 한국이 해결 방안과 협력사업을 제시해 PNG가 원하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경우, 원양어업을 위해 PNG에 입어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도 국익 차원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됨. 특히 한국 어업이 점차 사양산업화되는 상황에서 식량안보와 국가 차원의 장기적 관점에서도 연안어업 협력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PNG는 남태평양에서 가장 큰 국가이며, 태평양 도서국들은 지리적 여건상 자체적인 시장 접근 및 대규모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육상 사업 역시 중국계 사업자 등의 영향으로 진입이 어려운 만큼, 어업을 통한 국가 차원의 교류 확대는 기후변화 등 가변적 요인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및 시장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임.

4. 아르헨티나

◈ 7월 보고서

가.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6. 7. 6.	Epsol YPF (국영기업)	1.66 USD/L	MGO

나. 해양·수산업 동향

□ 해상 전략적 동맹

○ 아르헨티나 해안경비대와 인터폴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및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배타적경제수역(EEZ) 인접 해역에서 활동하는 어선단의 추적·감시를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함. 양 기관은 불법어업과 밀수·인신매매 등 해양 기반 범죄 대응을 위해 순찰·해상통제·선박검사·연안감시 및 위반 선박의 조기 탐지·차단 등에 협력하기로 함. 아르헨티나 해안경비대의 40년 이상 축적된 EEZ 및 인접 해역 감시·단속 경험과 위성 기반 실시간 해상 모니터링 역량을 인터폴의 범죄정보 데이터베이스, 정보교환 및 국제수배 시스템과 연계해 국가 간 공조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임. 이번 협력은 인터폴 환경안보사령부(ENS) 및 ALIOS 프로젝트 등 국제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해양자원 보호와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지역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수산/축산 수출업 관계자들과 생산조정부 장관과 면담

○ 마르델플라타 어선단 및 수산물 가공업계 대표들은 아구스틴 라비뉴 생산조정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경영난과 고용 불안을 설명하며 세제·규제 개선을 요청함. 업계는 높은 세금과 수출관세, 연료비 상승,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등이 비용 및 유동성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최초 판매 단계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수출관세 인하 또는 고부가가치 수산물에 대한 수출세 면제 등을 요구함. 또한 항만 규제 완화 및 투명성 제고, 어업 관련 기관을 연계한

단일 행정창구 마련, 어업 특성을 반영한 노동제도 개혁 등을 제안함. 정부는 농업 분야에 적용한 관세 인하 방안을 수산업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는 등 업계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개선을 추진할 방침임.

□ 불법 조업에 대한 징역형을 촉구

○ 2026년 6월 2일 아르헨티나 하원에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안(법안번호 2576-D-2026)이 제출되어 형사법위원회에 회부됨. 해당 법안은 형법에 불법어업 관련 범죄를 신설해 금어기·금지구역·무허가 조업, 금지어구 사용 및 허위 어획량 신고 등을 형사처벌하고, 보호종·멸종위기종 포획, 해양보호구역 내 조업 및 조직적 불법어업 등에는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한 불법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의 판매·운송·보관·가공·유통과 불법어업에 사용된 선박·어구·차량 및 불법 수익의 몰수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관여 법인에는 벌금, 영업·어업허가 정지 및 국가계약 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3인 이상이 불법어업을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한 경우에도 별도 형사처벌을 적용할 예정임. 이번 법안은 불법어업을 기존 행정상 위반행위에서 형사범죄로 전환하고 어획물의 유통·가공·수출 등 공급망 전반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의회 논의 과정에서 해양주권, 외국어선 통제, 어업허가 및 어획량 관리와 국내 수산업계·관련 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르헨티나 PSMA 가입 승인

○ 아르헨티나 하원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협약인 항만국조치협정(PSMA) 가입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85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체계에 편입되어 불법어획물의 항구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수 있게 됨. 협정 가입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외국 어선의 입항 전 사전정보를 요구하고 어획·조업 관련 서류 및 어획량을 검사하며, 불법조업 의심 선박의 입항을 거부할 수 있게 됨. 또한 국가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FAO의 글로벌정보

교환시스템(GIES)에 참여할 수 있어 국제적인 어업활동 감시 및 IUU 어업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다. 기타 동향

□ 아르헨티나 오징어 업계의 어두운 미래

○ 불법조업 및 해양보존 연구원 밀코 슈바르츠만은 최근 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 오징어 어선의 63% 이상이 중국계 기업 소유인 것으로 분석하고,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10년 이내 오징어 어선단 대부분이 중국 자본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함. 중국계 기업은 신규 선박의 직접 유입보다 현지 기업 인수, 지분 확보, 합작투자 및 기존 어업허가권 편입 등을 통해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보고서는 이러한 중국 자본의 확대가 단순한 외국인 투자를 넘어 주요 수산자원에 대한 경제적·상업적 통제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고, 일부 중국계 기업이 국제적으로 불법·미신고·비규제(IUU) 어업과 관련해 지적받은 사례를 들어 어업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을 제기함. 이에 따라 어업허가 발급·양도 과정과 전략적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가 보유기업의 외국자본 지배 여부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외국자본 유입에 따른 선박 현대화·고용·수출 확대 효과와 함께 핵심 해양자원에 대한 국가 통제력 약화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이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지로 부상

○ 아르헨티나는 2026년 1~5월 총 291,894톤, 약 10억 560만 달러 규모의 수산물을 수출함. 중국이 최대 수출시장으로 131,052톤, 3억 9,200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출액의 39.0%를 차지했으며, 스페인(14.4%), 미국(5.6%)이 뒤를 이음. 품목별로는 냉동 오징어·갑오징어류가 약 4억 5,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했으며, 새우는 46,625톤·3억 3,590만 달러로 24.6% 증가함. 대구(Merluccius hubbsi)도 48,279톤·1억 2,6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27% 증가하는 등 주요 수산물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임.

◈ 8월 보고서

가.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08.11	EPSOL YPF (국영기업)	1.68 USD/L	MGO	6%대 환률상승으로 유가 인상 예고

나. 대외 활동 내역

일자/장소	지원(협의)회사	지원(협의) 내용	기타
2026.08.06./ Karge export s.a 본사	주우루과이대사관 황혜영수산관	우루과이발 포크랜드 한국국적 원양선 관련	아르헨티나 경재수역 운행중 사고및 대처 협력문제 논의
2026.08.07./ karge export s.a본사	충북 식품안전품안정처, 부산지방식품안전품 안정처	대한민국 식품의약품 안전처 현지 공장시설 검수	부산지방 김명수 소장, 충북 이충헌주무관

다. 해양・수산업 동향

□ 어업수출량을 늘리면서도 여전히 손실

ㅇ 아르헨티나는 수출 및 외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높은 항만 비용・세금 부담, 운전자금 부족, 수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어업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임. 2025년 어업 수출은 549,416톤, 약 20억 1천만 달러로 물량 3.9%, 외환 수입 4.3% 증가했으며, 2026년 상반기에도 334,664.8톤, 11억 7,33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수출 증가가 곧 수익성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음. 2025년 평균 수출가격은 오징어 11.5%, 새우 12.8% 상승했으나 대구는 약 1% 상승에 그쳤으며, 2026년 상반기 냉동 오징어・갑오징어는 물량이 0.4% 증가했음에도 매출이 0.3% 감소한 반면 냉동 대구는 물량 28.1%, 매출 34.9%, 평균가격 5.4% 증가함. 이는 어종별・기업별 실제 수익성이 수출실적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을 보여줌. 특히 연료・임금・선박 유지보수・보험・가공・

하역・운송・관세・금융비용 등 생산・수출비용이 발생하고, 수출대금 회수에는 최장 120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 운전자금 부담이 큰 상황임. 또한 인플레이션, 금융비용・환율차이・감가상각 및 세금 등이 수익성을 제한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법인소득세는 25~35%, 법인세 납부 후 이익 배당 시 7%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어 최고 구간의 합산 한계세 부담은 약 39.55%에 달함.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어업은 수출실적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높은 생산비와 운전자금 부담, 인플레이션, 금융비용 및 세금으로 인해 실제 수익성과 현금흐름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임.

□ 새로운 오징어 조업선을 도입하는 18개 프로젝트가 승인

○ 연방수산위원회(CFP)는 CFP 결의안 제6/2026호에 따른 공모를 통해 오징어 조업 관련 신규 프로젝트 18건을 승인함. 총 27개 프로젝트가 제출됐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9~24년의 조업허가가 발급됨. 제안서는 아르헨티나 선원 비율, 선박 연식, 가공시설 보유 여부, 고용인원, 확정 어항, 사업그룹의 오징어잡이 어선 보유 규모 및 육상 가공 수준 등을 기준으로 평가됐으며, 최고점인 350점을 받은 Glaciar Pesquera SA와 Semaloma SA는 각각 24년간의 조업허가를 받음. 반면 일부 신청서는 필수 선서진술서 미제출, 선박 기술문서 및 산업시설 인증 미비, 오징어 조업 경험 부족 및 기타 공모 요건 미충족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음.

□ 아르헨티나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하이싱 2호에 12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국 어선 하이싱 2호(Hai Xing 2)가 자국 EEZ 내에서 불법어업으로 의심되는 기동을 한 사실을 전자추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18억 3,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이로써 2026년 아르헨티나의 제재 대상 외국 어선은 총 4척으로 늘었으며, SSRAyP 규정 제20/2026호에 따라 선박의 속도・항로・항로 변경・이동 거리 등을 기준으로 정상 항해와 어업 활동을 구분하고 있음. 특히 EEZ 내에서 6노트 미만으로 항해하며 어업과 일치하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오징어잡이 어선이 특별한 사유 없이 30분 이상 2노트 이하의 속도로 이동할 경우 어업 활동으로 판단할 수

있어, 현장 나포 없이도 전자추적 기록을 제재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됨. 하이싱 2호는 당시 바누아투 국적으로 EEZ에 진입해 평균 4.3노트의 속도로 약 0.49해리를 이동하는 등 트롤 어업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아르헨티나 당국은 선박의 위치·속도·항로 및 항해시간 기록을 증거로 행정절차를 진행함. 사건 이후 바누아투도 하이싱 2호를 포함한 관련 어선 3척을 자국 선박 등록부에서 삭제했으나, 해당 선박이 다른 국가의 국기를 취득해 운항할 가능성은 남아 있음. 이번 사건은 아르헨티나가 전자추적 데이터를 활용해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현장 나포 없이도 제재할 수 있는 EEZ 관리·단속 체계를 적용한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음.

◈ 9월 보고서

가.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09.03.	EPSOL YPF (국영기업)	1.68 USD/L	MGO	외환 안정세 확보로 유류 가격 동결

나. 해양·수산업 동향

□ 남대서양을 국가 안보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티에라델푸에고의 전략적 가치 재확인

○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9월 3일 남대서양에 대한 새로운 전략계획을 발표하며 포클랜드 제도 문제를 천연자원 보호, 해양 기반시설 확충 및 남극 진출 전략과 연계된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고, 북포클랜드 분지의 씨라이언(Sea Lion) 석유 프로젝트에 대응한 제재 강화, 국방예산 증액, 티에라델푸에고 통합 해군기지 건설, 극남 지역 통신망 확장 및 국가 주권 수호 관련 법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남대서양은 포클랜드 제도와 사우스 조지아·사우스 샌드위치 제도의 영유권 문제뿐만 아니라 탄화수소·어업 자원, 해상항로 및 남극 물류 등이 집중된 전략적 공간으로 평가되며, 티에라델푸에고는 남대서양과 남극 접근을 위한 주요 거점으로 제시됨. 통합 해군기지는 부두·정비·보급시설, 연료·통신망 등을 기반으로 해군·공군의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우수아이아를 중심으로 선박 보급, 과학탐사, 남극 물류 및 비상대응 기능을 확대할 계획임. 아르헨티나는 1904년부터 남극 상주 기지를 유지해 현재 13개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극 조약 체제하에서 영토·자원 개발에 제한이 있는 만큼 연구·기술·물류 역량과 국제적 제도 참여를 통한 영향력 확보를 중시하고 있음. 또한 포클랜드 제도 주변 자원개발과 관련해 자국 허가 없이 추진되는 사업을 인정하지 않고 관련 기업뿐 아니라 공급업체·주주·이사 등 참여자까지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위성·AIS·레이더·항공기 및 해군·해안경비대를 활용한 해양감시와 외국 선박의 의심 조업행위 판단을 위한 법적 기준도 강화하고 있음. 2026년 9월 3일 기준 국가통제 시스템에 등록된 아르헨티나 어선은 339척이며 이 중 172척이 조업 중인 것으로 집계됨. 이에 따라 밀레이 정부의 전략은 티에라델푸에고를 남대서양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고 해군기지·통신망·어선단·감시체계·과학 인프라를 연계해 포클랜드 제도, 남대서양 자원 및 남극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포클랜드 제도를 국가 상징으로 지정 전국에 전시할 것

○ 아르헨티나 하원에 포클랜드 제도를 국가 상징으로 지정하고 아르헨티나 영토임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국가 전역의 공공 영역에 상시 표시하는 법안이 8월 21일 니콜라스 트로타 하원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됐으며, 여러 정당 소속 의원 104명이 참여함. 법안은 아르헨티나 국립지리연구소(IGN)의 공식 지리적 표현을 국가 상징으로 활용하고 포클랜드 제도뿐 아니라 사우스 조지아·사우스 샌드위치 제도 및 관련 해역까지 포함하며, 국가 건물·대사관·영사관·교육기관·공항, 국적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과 여권, 정부 공식 웹사이트 및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등에 해당 이미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함. 또한 국가기관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아르헨티나의 공식 지도와 포클랜드 제도 등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됨. 어업 분야에서도 아르헨티나 어선들이 포클랜드 제도 실루엣이 표시된 국기와 문장을 자발적으로 게양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번 법안은 포클랜드 문제를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을 넘어 국가적·통합적 상징으로 강조하는 데 의미가 있음. 현재 법안은 하원 일반법률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심의 중임.

□ 아르헨티나 항구에서 외국 선박 통제에 관한 공동어업정책회의(CFP) -8월 22일-

○ 아르헨티나 어업협회(CAIPA)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예방・억제・근절하기 위한 항만국조치협정(PSMA)의 적용이 국내 어업 부문에 미칠 영향을 제기했으며, 연방수산위원회(CFP)는 관련 제안을 검토함. 주요 논점은 아르헨티나 배타적경제수역(EEZ) 인접 국제 해역, 특히 이른바 '201해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대규모 외국 어선단의 아르헨티나 항구 이용 문제로, 어업계는 외국 선박의 항구 이용 확대 시 국내 어선과 다른 비용・노동 부담, 운영 요건 및 보조금 체계로 인해 국내 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함. 이에 외교부는 PSMA 적용이 외국 어선의 무분별한 입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입항 선박에 대해 화물의 원산지와 어획 지역 등을 확인하는 검사 및 추적 절차가 적용된다고 설명함. 따라서 현재 논의의 핵심은 외국 선박의 항구 이용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외국 어선단의 활동과 어획물에 대한 검사・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내 어업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데 있으며, 특히 남서대서양에서 활동하는 외국 어선단 통제와 어획물 추적성 확보가 국내 어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남아 있음.

□ 코모도로 리바다비아 항만 서비스 -8월20일-

○ 코모도로 리바다비아 항에 조선소가 가동을 준비하면서 국내외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수리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 코모도로 리바다비아 항만청(APPCR)은 해당 조선소가 선박 국적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제 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오징어 어선단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힘. 이에 따라 추부트 지역 어선들이 타 항구로 이동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수리할 수 있어 지역 어업 및 항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아르헨티나의 항만국조치협정(PSMA) 가입에 따라 외국 선박에는 입항 전후 관련 통제 절차가 적용되며, IUU 어업이 의심되는 선박은 입항을 거부하고 입항이 허용된 선박에 대해서도 화물 검사, 어획물 추적성 및 선박정보 확인 등이 가능함. 이에 따라 조선소는 외국 선박을 유치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조업하는 선박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어선단에 수리·항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코모도로 리바다비아를 해군 수리 및 선박 서비스 분야의 전략적 항구로 발전시켜 남서대서양의 지역적 이점을 활용하고 새로운 경제활동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CTMFM 결의안 제7/2026호: 2026년 하반기 연안 및 원양 가오리 어획 할당량 조정 -8월13일-

○ 해양전선공동기술위원회(CTMFM)는 2026년 상반기 연안 및 원양 가오리 어획 할당량이 모두 소진되지 않음에 따라 미사용분을 하반기로 이월해 2026년 하반기 어획 허용량을 연안 가오리 2,700톤, 원양 가오리 3,442톤으로 조정함. 이는 CTMFM 결의안 제7/2026호에 따른 것으로, 상반기 말 발생한 할당량 잔액을 하반기에 반영하도록 한 기존 규정에 근거함. 2025년 하반기 할당량은 연안 가오리 2,411톤, 원양 가오리 3,773톤으로, 2026년에는 연안 가오리가 289톤 증가하고 원양 가오리가 331톤 감소함. 연안·원양 가오리는 어획 지역과 수심 등을 기준으로 구분되며, 실제 어업 현장에서는 개별 종의 학술적 분류보다 가오리 또는 어획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거래되는 경우가 있음. 이번 조정은 상반기 미사용 어획량을 하반기에 반영하면서 양국 공동기구의 규제 체계 내에서 수산자원을 관리·이용하기 위한 조치임.

5. 인도네시아

◈ 7월 보고서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 7. 2.	Pertamina	1 USD/L	선박유 MFO	
2026. 7. 2.	Pertamina	0.60 USD/L	차량용 일반 휘발유	일부 유종 32% 상승했으나, 시위 이후 7월 2일 다시 인하

나.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1Kg)	단가 (USD)	기타
고등어	Round	2.2~3.5	
	Fillet	8.0~10.0	
참치	Round	2.3~3.0	수출수요 증가로 가격 강한편
	Fillet	8.5~12.8	
오징어	Fresh Round	3.0~4.3	기온 때문에 공급이 소폭 하락
	Frozen Round	3.0~4.5	
틸라피아	Round	2.1~2.4	
	Fillet	6.8~8.0	

다. 해양·수산업 동향

□ 인도네시아, 홍콩 밀수 과정에서 압수한 나폴레옹피시 1,300마리 자연 방류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KKP)는 5월 29일 술라웨시해에서 압수한 보호대상 어종 나폴레옹피시(Napoleon Fish) 1,300마리를 6월 5일과 7일 북술라웨시 해양보호구역에 방류함. 해당 개체들은 홍콩으로 향하던 상투메프린시페 국적 화물선에서 적발된 불법 밀수 사건의 증거물로, 살아있는 보호어종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자연 서식지로 돌려보낸다는 원칙에 따라 대부분 방류했으며 수사·재판에 필요한 일부 개체는 증거물로 보관함. 당국은 선박 소유주와 운영 책임자 및 관련 밀수 네트워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인도네시아

내 허가 없이 포획·유통·수출할 수 없는 보호대상 수산자원의 불법거래 단속을 지속 강화할 방침임.

□ 인도네시아, 바탕 산업특구 해안·해양공간 관리 강화 추진

○ 인도네시아는 바탕 통합산업단지(PT KITB)와 협력해 국가전략사업인 바탕 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육·해상 공간계획 연계 및 해안 관리체계 강화를 추진함. 양측은 교통망·항만 개발 및 해안 지역 관리 등을 체계화하고, 해양공간 이용 기준을 마련해 투자 안정성과 지역사회 참여를 높일 계획임. 이번 협력은 바탕 특별경제구역(KEK)의 투자 및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해안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 협력 분야로 해양공간계획, 연안 생태계 복원,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및 해양공간 정책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할 예정임.

□ 해양을 되살리는 작은 실천, 발리 해변 정화 활동 개최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KKP)는 DANA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세계 해양의 날 및 산호삼각지대의 날을 기념해 6월 13일 발리 쁘띠뜨겟 해변에서 해변 정화활동을 실시함. 지역주민, 대학, 기업, 지방정부 등이 참여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공동 실천을 추진함. 지역 기업들은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한 제로 웨이스트 실천 서약에 참여했으며, 이번 활동을 통해 해안 생태계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블루이코노미 발전을 지원할 계획임.

라. 일반·투자 동향

□ 인도네시아 시위·유가 상승에 따른 수산·제조업 공급망 부담 확대

○ 최근 인도네시아의 유류가격 상승과 생활물가 부담, 정부 재정·에너지 정책 변화 등에 따른 시위로 현지 수산업 및 한국 제조기업의 경영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수산업계는 유류비 상승에 따른 어선 운항비와 냉장·냉동 보관·운송비 증가, 루피아 환율 변동에 따른 수입 원자재·부품·장비 조달비 상승이 주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요 도시의 시위로 도로 통제와 항만 접근 지연이 발생하면서 일부 지역의 출하·선적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됨.

제조기업 역시 부품 조달 지연, 생산 일정 차질, 원가 상승 및 재고·납기 관리 부담이 확대되고 있음. 전국적인 산업활동 중단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비용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상황 점검이 필요함.

마. 기타 동향

□ 인도네시아 대학생 대규모 시위의 원인과 배경

○ 최근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는 정부의 유류보조금 축소 및 기름값 인상이 주요 계기가 된 것으로 파악됨. 물가 상승으로 생활 부담이 커진 가운데 유류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 불만이 확대되면서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주요 요구사항은 ①기름값 및 필수품 가격 안정 ②실효성이 낮은 정부사업 등 예산 낭비 중단 및 민생 중심의 재정운영 ③군·경의 민간영역 개입 축소 등 민주주의 회복임. 현재 시위는 정권 교체보다는 정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성격으로 파악되며, 경찰의 진압과 자카르타 도심 통제로 일부 지역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 유류가격은 일시적으로 인하되었으나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확대된 상황임.

◈ 8월 보고서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 8. 7.	Pertamina	1.00 USD/L	선박유(MFO)	
2026. 8. 7.	Pertamina	0.60 USD/L	휘발유	

나.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1Kg)	단가 (USD)	기타
고등어	Round	2.2~3.5	
	Fillet	8.0~10.0	
참치	Round	2.5~3.5	꾸준한 상승세
	Fillet	8.8~13.0	
틸라피아	Round	2.1~2.5	
	Fillet	6.8~8.2	
오징어	Fresh Round	3.2~4.5	
	Frozen Round	3.0~4.5	

다. 해양·수산업 동향

□ 인도네시아 중대형 어선(30~200GT) 특별 연료지원 정책 발표

ㅇ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KKP)는 30GT 초과~200GT 이하 어선 및 어획물 운반선을 대상으로 경유(BBM)를 리터당 Rp15,000의 특별가격으로 공급하며, 해당 지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임.

ㅇ 유효한 SIPI 또는 SIKPI 조업허가를 보유하고 최근 6개월 이내 실제 조업 실적이 있어야 하며, VMS를 정상 운영하고 선주·선원(ABK) 간 수익배분 조정에 동의해야 함. 또한 청렴서약(Integrity Pact)을 체결해야 함.

ㅇ 급유 계획을 항만당국에 사전 신고하고 허가된 모항에서만 급유해야 하며, 지원 연료는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하고 타 선박으로 이전할 수 없음. 급유 시 VMS를 정상 작동시키고 KKP의 감독·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연료 추천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연료를 사용하고 사용실적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정부는 신청부터 급유 및 연료 사용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지원 연료의 부정 사용과 유출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관리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임.

ㅇ 지원 대상은 약 6,712척이며 예상 연료 수요는 약 3억 9,900만 리터

규모임. 이번 정책은 중대형 어업의 경쟁력 유지와 수산물 공급 안정화를 위한 한시적 지원책으로, 2026년 말 정책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 및 지원 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누사 페니다 해역의 해류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

○ 인도네시아는 해류를 활용한 해류발전소(PLTAL) 개발을 통해 해양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류 데이터와 전력·교통망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해 발리 누사 페니다 해역을 최적지로 선정함. 누사 페니다 해류발전소는 2029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되며, 발리 주정부는 해당 지역을 저탄소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이번 사업은 해양자원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생산 확대와 에너지 자립, 탄소배출 저감 및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이용을 목표로 함.

□ 바탐지역 랍스터 양식 시범사업 평가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KKP)는 리아우제도 바탐에서 랍스터 양식 시범사업(Modeling)을 추진 중이며,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가운데 첫 수확은 9월로 예정됨. 바탐 해양양식센터(BPBL Batam)는 지난해 10월부터 랍스터를 사육해 현재 대형 가두리 116개와 중형 가두리 56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 가두리의 랍스터는 평균 150~200g까지 성장함. 약 3헥타르 규모 시설에서 5g 내외의 어린 랍스터를 생산·공급하고 3×3m 가두리당 최대 40kg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조개류 양식을 랍스터 사료 공급과 연계해 침체된 조개 양식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또한 폼프렛과 흰도미 양식 및 종묘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 수산물은 바탐 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종묘 생산 및 양식 과정에는 각각 CPIB와 CBIB 기준을 적용해 품질과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음.

라. 일반・투자 동향

□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발표

ㅇ 인도네시아의 2026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5.29%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으며,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가 성장을 견인함. 다만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기업과 소비자의 경기 전망도 신중해지는 등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임.

□ 독립기념일 전후 시위 가능성

ㅇ 최근 SNS를 중심으로 8월 독립기념일 전후 대규모 시위・폭동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확산됐으나, 정부와 주요 노동단체는 이를 공식 부인함. 다만 독립기념일 전후 학생・시민단체의 집회 가능성에 따라 자카르타 중심가에서 일시적인 교통 통제 및 혼잡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대규모 폭력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9월 보고서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09.10.	Pertamina	1.1 USD/L	선박유(MFO)	
2026.09.10.	Pertamina	0.6 USD/L	차량용 일반 휘발유	변동없음

나.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1Kg)	단가 (USD)	기타
고등어	Round	2.2~3.5	
	Fillet	8.5~11	
참치	Round	3.5~4	가공 수출가 상승
	Fillet	9.1~13	
틸라피아	Round	1~2.5	어획량증가로 가격하락
	Fillet	5.8~7.2	
오징어	Fresh Round	3.5~4.9	
	Frozen Round	3.0~5	

다. 해양·수산업 동향

□ 일본 수출 가공 참치·가다랑어 제품, 8월부터 0% 관세 적용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KKP)는 2026년 8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산 가공 참치 및 가다랑어 제품의 일본 수출 시 IJEPA 특혜관세 0%가 적용된다고 밝힘. 기존 일반 수입관세(MFN) 9.6%에서 0%로 낮아지며, 대상 품목은 1604.14.010(밀폐용기 포장 가다랑어), 1604.14.092(밀폐용기 포장 참치), 1604.14.091(삶아 건조한 가다랑어 및 보니토), 1604.14.099(냉동 조리 참치) 등 4개 HS Code임. 일본은 인도네시아산 가공 참치·가다랑어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2025년 인도네시아의 대일 수산물 수출액은 6억 1,365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으며, 주요 품목은 새우 52.1%, 참치·가다랑어 26.2%, 진주 5.9%를 차지함. 특히 관세 적용 대상인 가공 가다랑어 제품의 2025년 일본 수출액은 7,641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0% 증가함.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IJEPA 적용 가능성이 있는 30개 수산물 가공·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행정·기술 검사를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11개 업체가 요건을 충족해 IJEPA 등록번호를 취득함. 향후 정기점검과 2차 등록을 통해 참여 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번 관세 인하로 인도네시아산 참치·가다랑어 제품의 일본 내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 확대와 어획물 수요 증가, 수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인도네시아, ILO 기준 적용하여 어선원 보호 강화

○ 인도네시아 정부는 어선원(AKP)의 근로환경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어업기업 및 선주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2026년 대통령령 제25호를 통해 ILO 협약 제188호(어업부문 노동협약)를 비준하고, 해양수산부령(Permen KP) No. 4/2026 Fishing Vessel Crew Management를 시행해 어선원의 채용부터 근무환경·안전·사회보장까지 관리 기준을 구체화함. 이에 따라 어선원은 만 18세 이상, Fisheries Seaman's Book, 직무능력 및 관련 자격 인증, 건강진단서, BPJS Employment 가입, 선주와의 PKL(Maritime Work Agreement) 체결 및 공식 선원 모집·배치 절차 이용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불법 선원 모집과 인신매매

(TPPO), 노동착취 및 근로조건 위반 등도 주요 관리 대상에 포함됨. 위반 시 지도·개선명령, 서면경고, 영업 또는 관련 활동 일시중지, 행정벌금, 선박 운영허가 동결·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으로 이관될 수 있음. 정부는 2021년부터 어선원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사례로 KM Awindo 2A의 예비 어선원 21명과 관련된 인신매매 사건이 소개되는 등 관련 문제를 노동문제를 넘어 형사 문제로도 다루고 있음. 한편 KKP는 어선원 안전교육도 확대해 현재까지 3,584명에게 BSTF (Basic Safety Training Fisheries) 교육을 실시하고 Seaman's Book 발급을 지원함. 이에 따라 어업기업 및 선주는 선원의 신원·연령, 자격 및 교육, 건강진단, 사회보장 가입, PKL, 모집·배치 절차, 안전교육,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서류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상 요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인도네시아 해조류와 젤라틴, 미국의 추가 10% 관세 면제

○ 인도네시아산 해조류(Seaweed/Algae)와 젤라틴(Gelatin) 제품이 미국의 추가 Section 301 관세 10%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MFN(최혜국) 관세 0%만 적용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중국·한국·스페인·이탈리아·일본·태국·필리핀·베트남 등 주요 경쟁국 제품에는 현재 10~1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되고 있음. 한편 인도네시아산 새우에는 약 13.90%(추가 Section 301 관세 10%+반덤핑 관세 3.90%)의 관세가 적용되어 인도산 19.53%, 베트남산 41.10%보다 낮은 수준이며, 게류는 일부 아시아 공급국 대비 2.5%의 관세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 참치, 오징어·갑오징어·문어, 틸라피아 등도 주요 경쟁국 대비 상대적인 관세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평가됨.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우 수출업체의 반덤핑 행정재심 대응을 지원하고, 참치·게·오징어류·틸라피아 등의 미국 시장 접근 확대와 해조류·젤라틴의 신규 시장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관·수산업계·수출업체 및 미국 주재 대표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라. 일반・투자 동향

□ 인도네시아, 전략 원자재 자체 가격 결정권 강화

ㅇ 프라보워 대통령은 8월 14일 2027년 국가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27년 1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전략 광물・원자재 거래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음. 니켈, 주석, 금, 석탄, 팜오일(CPO) 등 주요 수출 원자재에 대해 인도네시아 자체 기준가격을 마련하고, 생산자・수출업체・구매자 등이 투명한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임. 이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도 국제시장에서 다른 국가가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인도네시아가 원자재의 가격 결정권과 수익을 더욱 확보하려는 정책으로 평가됨.

□ 인도네시아・중국, 광물・에너지・첨단기술・수산업 협력 확대

ㅇ 8월 20~21일 중국과 인도네시아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은 광물자원, 에너지, 첨단기술, AI, 철도, 친환경 에너지 및 수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특히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니켈・주석・구리・금・보크사이트 등 풍부한 자원에 대한 주요 투자국이자 구매국으로, 2026년 상반기에만 약 39억 달러를 인도네시아에 직접 투자함. 양국은 향후 2027~2031년 협력계획을 마련하고 수산업 및 해양 분야 협력도 재개하기로 해, 중국이 인도네시아의 자원・제조업・인프라 분야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앞으로도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음.

6. 가나

◈ 7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Afko	Afko 808	2026-05-13/ 2026-06-01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Master	2026-05-25/ 2026-05-29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Commander	2026-06-11/ 2026-06-14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Queen	2026-06-10/ 2026-06-13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Discoverer	2026-06-29/ 2026-07-01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Path finder	2026-06-07/ 2026-06-10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Grace	2026-06-14/ 2026-06-17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Fore runner	2026-05-31/ 2026-06-02	하역	Tema	조업중
DH	Sea plus 87	2026-06-23/ 2026-06-26	하역	Tema	조업중
DH	Iris J	2026-05-25/ 2026-06-03	하역	Tema	조업중
DH	Iris Q	2026-06-01/ 2026-06-10	하역	Tema	조업중
Agnes Park	Agnes 1	2026-06-22/ 2026-06-27	하역	Tema	조업중
Dicha Venture	Dicha Uno	2026-06-29/	하역	Abidjan	하역중
Dicha Venture	Dicha Siete	2026-06-29/	하역	Abidjan	하역중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 6. 30	GHANA OIL(GOIL)	1.375 USD/L	MGO	양상급유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ellow fin tuna	10kg up	USD 2,100 / Mt	Round
Yellow fin tuna	10kg under	USD 1,680 / Mt	Round
Skip jack tuna	3.4kg up	USD 1,620 / Mt	Round
Skip jack tuna	1.8kg up	USD 1,570 / Mt	Round
Skip jack tuna	1.8kg under	USD 1,420 / Mt	Round
Skip jack tuna	1.5kg under	USD 1,270 / Mt	Round

라. 해양·수산업 동향

□ 해양산업 인프라 투자 확대

○ 영국의 지원으로 가나 Takoradi 항만 내 선박 수리 및 Dry Docking 시설에 1억 100만 파운드 규모의 투자가 추진되며, 약 43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가나를 걸프기니 지역의 해사 서비스 허브로 육성할 기반이 마련됨. 또한 영국은 인프라·에너지·농수산업 등 분야에서 추가적인 투자 및 협력을 확대할 계획임.

□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및 국제협력

○ 가나와 노르웨이가 7년간 추진한 어업발전(FFD)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으며, 양식업 개발계획 수립, 양식장 등록 디지털화, 수산동물 건강관리 강화, 어업관리계획 도입 및 수산자원 관리·감시 역량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둠. 향후에도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연안지역 생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해양·항만 디지털화 및 경쟁력 강화

○ 가나는 해양·항만 분야의 전자문서화, 무서류 시스템, 사이버보안 강화 등 디지털 전환과 함께 정부기관·항만·업계 간 협력을 확대하여 무역 및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음. 이를 통해 행정절차와 중복업무를 줄이고 부패 및 제도적 비효율을 개선하여 가나를 서아프리카 해양·물류 허브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8월 보고서

가. 대외 활동 내역

일자/장소	지원(협의)회사	지원(협의) 내용
2026.07.13./ 주가나 대한민국 대사관	주 가나 대한민국 대사관	명예수산관 사무소 건물 명패 및 임명장 전달식

나.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Afko	Afko 808	2026-07-08/	하역	Tema	하역후 수리중
Panofi	Master	2026-07-04/ 2026-07-07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Commander	2026-07-08/ 2026-07-14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Queen	2026-07-05/ 2026-07-11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Discoverer	2026-07-29/	하역	Tema	하역중
Panofi	Path finder	2026-07-05/ 2026-07-10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Grace	2026-07-11/ 2026-07-16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Fore runner	2026-07-04/ 2026-07-09	하역	Tema	조업중
DH	Sea plus 87	2026-07-29/	하역	Tema	하역중

DH	Iris J	2026-07-01/ 2026-07-07	하역	Tema	조업중
DH	Iris Q	2026-07-13/ 2026-07-18	하역	Tema	조업중
Agnes Park	Agnes 1	2026-06-22/ 2026-06-27	하역	Tema	조업중
Dicha Venture	Dicha Uno	2026-06-29/ 2026-07-04	하역	Abidjan	조업중
Dicha Venture	Dicha Siete	2026-07-27/	하역	Abidjan	하역중

다.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 07. 31	GOIL	0.941 USD / L	MGO	양상급유

라.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ellowfin tuna	10kg up	USD 2,100 / Mt	
Yellowfin tuna	10kg under	USD 1,680 / Mt	
Skip jack tuna	3.4kg up	USD 1,650 / Mt	
Skip jack tuna	1.8kg up	USD 1,600 / Mt	
Skip jack tuna	1.8g under	USD 1,450 / Mt	
Skip jack tuna	1.5kg under	USD 1,300 / Mt	

마. 해양・수산업 동향

□ 지역사회 주도형 수산자원 관리, 어자원 회복의 핵심(수산위원회)

ㅇ 가나 수산위원회는 감소하는 연안 수산자원 회복과 소규모 어업인의 생계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주도형 수산자원 관리와 공동관리(Co-management)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어업인이 수산자원 문제 파악과 해결책 마련,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경우 법규 준수와 자원 회복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평가함. 이를 위해 CaFGOAG와 Mundus Maris가 소규모어업 아카데미(SSF Academy)를 운영해 4개 연안지역 퍼실리테이터의 공동관리 촉진을 위한 대화・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어업・양식법 2025(Act 1146)에 따라 어업인・카누 등록, VMS 설치, IUU 어업 단속, 해양보호구역 지정, 규정 준수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관리체계도 강화하고 있음. 수산위원회는 처벌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수산자원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지역사회와 여성 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해 현장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수산부, 「어업・양식업 규정(안)」 이해관계자 협의 개최

ㅇ 가나 수산부는 어업・양식업법 2025(법률 제1146호)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마련한 어업・양식업 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협의 워크숍을 타코라디에서 개최함. 수산업계, 어업인 단체, 시민사회단체, 어류 가공업자, 지방정부 및 집행・국가기관 등이 참석해 규정(안)의 주요 조항과 시행 과정의 예상 문제점을 검토함. 주요 논의 분야는 어업자원 관리, 양식업 개발, 면허・등록, 모니터링・통제・감시(MCS), 자원보존, 어획 후 관리, 어류 품질관리 및 집행체계 등이며, 현장 의견과 기술적 권고사항을 반영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둠. 수산부와 수산위원회는 이번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와 책임 있는 양식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체계를 마련할 방침임.

□ FDA, 비위생적 어류 가공 적발 후 압류

ㅇ 가나 식품의약품청(FDA)은 SNS를 통해 확산된 비위생적인 훈제・

염건 어류 가공 영상과 관련해 현장 조사 및 제품 압류를 실시하고, 테마시청 및 가나 경찰과 합동 단속을 진행함. FDA 신속대응팀은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된 어류를 압류하고 관련 가공업자들에게 식품위생 및 공중보건상 위험성을 교육함. FDA는 비위생적으로 가공된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향후 연안지역 어류 가공업자와 판매상을 대상으로 위생교육과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며, 소비자들에게도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 이용과 제품의 오염·부패 여부 확인 및 충분한 세척·가열조리를 당부함. 이번 조치는 수산물 생산·가공 단계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비위생적인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해 수산물 품질 및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으로 평가됨.

◈ 9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Afko	Afko 808	2026-08-18/	하역	Tema	출어 준비중
Panofi	Master	2026-08-23/ 2026-08-26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Commander	2026-08-04/ 2026-08-08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Queen	2026-08-10/ 2026-08-13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Discoverer	2026-08-29/	하역	Tema	하역중
Panofi	Path finder	2026-08-01/ 2026-08-04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Grace	2026-08-13/ 2026-09-17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Fore runner	2026-08-08/ 2026-08-12	하역	Tema	조업중
DH	Sea plus 89	2026-08-10/ 2026-08-15	하역	Tema	조업중
DH	Iris J	2026-08-31/	하역	Tema	하역중
DH	Iris Q	2026-08-17/ 2026-08-27	하역	Tema	조업중

Agnese Park	Agnes 1	2026-08-01/ 2026-08-05	하역	Tema	조업중
Dicha Venture	Dicha Uno	2026-08-03/ 2026-08-08	하역	Tema	조업중
Dicha Venture	Dicha Siete	2026-08-28/	하역	Tema	하역중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 08. 31	GOIL	0.932 USD/L	MGO	양상급유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ellowfin tuna	10kg up	USD 2,100/MT	Round 제품 기준
Yellow fin tuna	10kg under	1,680	
Skip jack tuna	3.4kg up	1,650	
Skip jack tuna	1.8kg up	1,600	
Skip jack tuna	1.8kg under	1,450	
Skip jack tuna	1.5kg under	1,300	

라. 해양・수산업 동향

□ 수산자원 위기와 여성 생계의 영향

○ 가나 연안지역 여성들은 어류 훈제・가공・거래・유통 등 수산업의 어획 후 부문을 주도하며 소규모 연안어업과 지역 수산경제를 지탱하고 있으나,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로 소득과 생계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어획량 감소로 생선 확보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소비자 구매력 저하로 판매량과 수익성이 함께 악화되고 있으며, 가계 식량・자녀 교육비・의료비 및 소규모 사업 유지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음. 2019년부터 시행된 연간 금어기는 산란기 어획 압력을 줄이고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조치이나, 어획 후 가공·판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소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수산자원 보호와 지역사회 생계 간 균형이 과제로 제기됨. 또한 연료비 상승으로 어업비용과 생선가격이 함께 오르면서 여성들의 사업 운영 부담도 증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위기가 소득 감소, 사업 유지의 어려움 및 부채 증가 등 경제·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

□ 유엔대표단, 농어촌 어업인 권익 강화를 위해 수산부와 회동

○ 가나 정부는 새 수산·양식법 2025를 기반으로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이를 위해 불법 어구·화학물질·집어등 사용을 제한하고, 생태계 기반 관리와 지역 어업인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연안배타구역(IEZ) 집행 강화해 소규모 어업인을 산업트롤어선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며, 수산단속반 운영과 지역사회 기반 감시체계 확대, 금어기·망목 규정·하역 기준 등 관리 제도도 강화하고 있음.

□ 불법어업 대응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 가나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집어등을 이용한 불법 어업 등이 수산자원 감소와 전통적인 소규모 연안어업의 기반 약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IUU 어업 확산은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뿐만 아니라 어획 후 가공·판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획물 부족으로 여성 가공·판매업자의 사업 기반도 위축될 수 있음. 이에 가나 수산위원회와 환경단체 및 학계는 IUU 어업을 주요 수산업 위협으로 보고 수산법 집행 및 불법어업 단속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특히 수산자원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유해야 할 자원이라는 인식 아래, IUU 어업을 억제하고 전통적인 소규모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 해양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ㅇ 가나는 해양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해양 및 관련 범죄법안」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가나해양청(GMA)은 UNODC 및 EU와 함께 해양안보·법집행 역량 강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함. 새 법안은 해적행위, 해상강도, 밀수, 초국적 범죄 등 해양범죄의 범죄화 및 억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국내 법원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음. 또한 국제해양법 및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국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해양 관련 형사사법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추진됨. 가나는 EU와 UNODC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양 법집행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기니만 지역의 해양안보를 제고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 수산업 지원정책의 투명성 및 공동체 관리 강화

ㅇ 국가 프리믹스 연료 사무국(NPFS)은 어촌 공동체에 공급되는 프리믹스 연료의 유통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 공급소를 확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연료 유통 현황을 관리하고 연료 전용·매점 등의 문제를 방지하는 한편, 신규 공급소에 현장 감독관을 배치하고 전국 착륙 해변위원회(LBCs)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실제 운영·관리체계도 강화하고 있음. 또한 연료 마진의 일부를 학교, 도서관, 지역 보건시설 등 어촌 공동체 개발사업에 활용하는 어촌개발기금의 투명한 관리도 주요 과제로 제시됨. 이에 따라 프리믹스 연료의 안정적 공급뿐만 아니라 연료 유통 및 공동체 개발기금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련 자원이 실제 어촌 주민들의 생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성과 감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세네갈

◈ 7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SENEGAL	COK	2026-06-06/ 2026-06-12	하역	다카르항	
SENEGAL	ORK	2026-06-09/ 2026-06-17	하역	다카르항	
SENEGAL	XIX	2026-06-13/ 2026-06-22	하역	다카르항	
SENEGAL	GRA	2026-06-21/ 2026-06-26	하역	다카르항	
SENEGAL	WEK	2026-06-27/ 2026-07-01	하역	다카르항	
SENEGAL	CAA	2026-06-30/ 2026-07-04	하역	다카르항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 6. 29.	다카르항	1.00 USD/L	MGO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F	10kg up	$1,800/MT	
YF	3.4-10kg	$1,700/MT	
YF	1.8-3.4kg	$1,600/MT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F	1.5-1.8kg	$1,450/MT	
YF	1.5kg under	$1,250/MT	
SJ	3.4kg up	$1,650/MT	
SJ	1.8-3.4kg	$1,600/MT	
SJ	1.5-1.8kg	$1,450/MT	
SJ	1.5kg under	$1,250/MT	
BE	10kg up	$1,450/MT	
BE	3.4-10kg	$1,450/MT	
BE	1.8-3.4kg	$1,450/MT	
BE	1.5-1.8kg	$1,300/MT	
BE	1.5kg under	$1,100/MT	
YF/SJ/BE	1.5kg under	XOF 575/Kg	

라. 해양·수산업 동향

□ 정부 정책 및 수산 자원 관리 강화

○ 6월 세네갈 정부는 수산업을 국가 경제와 식량안보의 핵심 분야로 재확인하고, 어족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IUU 어업 단속 강화, 어업허가 관리 투명성 제고, 산업어선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함. 또한 영세어민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산업어선의 연안 접근 제한을 확대하고 기존 연안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 연안 어업 보호 정책 확대 움직임

○ 6월 중순 세네갈은 국제 해양회의에서 산업어선의 연안 조업 제한구역을 기존 6해리에서 12해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힘. 이는 소형어선을 이용하는 전통어업 종사자의 조업 공간을 확보하고 치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산업어선 및 수산가공업계는 원료 확보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향후 산업어선과 영세어민 간 조업권 조정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임.

◈ 8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Senegal	WEK	2026-06-27/ 2026-07-01	하역	다카르항	
Senegal	CAA	2026-06-30/ 2026-07-04	하역	다카르항	
Senegal	COK	2026-06-30/ 2026-07-07	하역	다카르항	
Senegal	XIX	2026-07-09/ 2026-07-16	하역	다카르항	
Senegal	ORK	2026-07-11/ 2026-07-22	하역	다카르항	
Senegal	GRA	2026-07-11/ 2026-07-19	하역	다카르항	
Senegal	WEK	2026-07-12/ 2026-07-22	하역	다카르항	
Senegal	CAA	2026-07-22/	하역/수리	다카르항	
Senegal	COK	2026-07-23/ 2026-07-31	하역	다카르항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07.29.	다카르항	1.05 USD/L	MGO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F	10kg up	$1,800/MT	
YF	3.4-10kg	$1,700/MT	
YF	1.8-3.4kg	$1,600/MT	
YF	1.5-1.8kg	$1,450/MT	
YF	1.5kg under	$1,250/MT	
SJ	3.4kg up	$1,650/MT	
SJ	1.8-3.4kg	$1,600/MT	
SJ	1.5-1.8kg	$1,450/MT	
SJ	1.5kg under	$1,250/MT	
BE	10kg up	$1,450/MT	
BE	3.4-10kg	$1,450/MT	
BE	1.8-3.4kg	$1,450/MT	
BE	1.5-1.8kg	$1,300/MT	
BE	1.5kg under	$1,100/MT	
YF/SJ/BE	1.5kg under	XOF 575/kg	

라. 해양·수산업 동향

□ 연안 산업어선 조업 제한 확대 추진

○ 세네갈 정부는 연안 어족자원 보호와 소규모 어업인 보호를 위해 산업어선의 조업 제한구역을 기존 6해리에서 12해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산업형 저인망 어선의 연안 조업으로 인한 어린 개체 및 산란장 훼손을 줄이고 어족자원의 자연 회복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지방 어업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원관리와 어업허가 운영 체계도 개선할 계획임.

□ 생산 동향

ㅇ 2026년 상반기 세네갈 어업 생산은 연안어업이 전분기 대비 31.7%, 전체 어업 생산이 26.3%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임. 야간 조업 재개와 기상 여건 개선, 주요 어항의 어획량 증가 등이 생산 확대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생루이(Saint-Louis), 티에스(Thiès), 파틱(Fatick) 지역에서 전년 대비 어획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마. 기타 동향

□ 유해 송환

ㅇ 한국 원양산업협회가 추진한 해외 원양산업 종사자 유해 송환 사업을 통해, 1989년 세네갈에서 사고로 별세한 고(故) 오윤식 씨의 유해가 약 37년 만인 2026년 7월 말 대한민국으로 무사히 봉환됨. 유가족과 관계기관은 그동안 현지의 법적·행정적 제약으로 송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주세네갈 대한민국 대사관이 세네갈 정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유해 발굴 및 반출 절차를 지원한 끝에 최종 승인을 받아 송환이 성사됨.

◈ 9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Senegal	WEK	2026-08-03/ 2026-08-08	하역	다카르항	
Senegal	ORK	2026-08-10/ 2026-08-15	하역	다카르항	
Senegal	XIX	2026-08-11/ 2026-08-17	하역	다카르항	
Senegal	GRA	2026-08-13/ 2026-08-19	하역	다카르항	
Senegal	CAA	2026-08-17/	상가수리	다카르항	
Senegal	WEK	2026-08-21/ 2026-08-27	하역	다카르항	
Senegal	COK	2026-08-22/	하역	다카르항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 08. 27.	다카르항	1.29 USD/L	MGO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F	10 Kg Up	$2,000/MT	
YF	3.4～10kg	$1,900/MT	
YF	1.8～3.4kg	$1,800/MT	
YF	1.5～1.8kg	$1,650/MT	
YF	1.5kg under	$1,450/MT	
SJ	3.4kg up	$1,850/MT	
SJ	1.8～3.4kg	$1,800/MT	
SJ	1.5～1.8kg	$1,650/MT	
SJ	1.5kg under	$1,450/MT	
BE	10kg up	$1,650/MT	
BE	3.4～10kg	$1,650/MT	
BE	1.8～3.4kg	$1,650/MT	
BE	1.5～1.8kg	$1,500/MT	
BE	1.5kg under	$1,300/MT	
YF/SJ/BE	1.5kg under	XOF 575/Kg	

라. 해양·수산업 동향

□ 해양 가두리 양식 도입

○ 국가양식청 (ANA)은 8월 초 팔마랭 해안에 최초로 25미터 규모의 부유식 가두리 2개를 설치함. 연안 어장 남획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약 60만 달러를 투입함. 세네갈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3,000톤 수준인 양식 생산량을 2030년까지 2만 톤으로 확대하여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어촌 소득을 다변화할 계획임.

□ 수산 정책 AU 표준화

○ 수산해양경제부는 세네갈의 수산·양식 관리 정책을 아프리카연합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한 정책 워크숍을 개최함.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법적 결함을 보완하는데 집중함.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수산 자원 평가 체계를 최신화하여 수산물 수출경쟁력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임.

□ 세네갈 - 이집트 수산 협력

○ 8월 7일 다카르에서 양국 수산분야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음. 수산물 가공 인프라 현대화, 어선 건조, 수리 기술 교류, 양식 기술 공동 연구 등 실질적인 해양경제 협력 방안이 다루어졌음. 세네갈은 이집트의 가공·양식 노하우를 도입해 수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집트는 서아프리카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하기로 함.

8. 뉴질랜드

◈ 7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DW NEW ZEALAND LTD.	DONG WON 519	2026-06-11/ 2026-06-12	유류 및 하역	TIMARU
JAICO LTD	HAPPINUI	2026-06-12/ 2026-06-13	유류 및 하역	DUNEDIN
DW NEW ZEALAND LTD.	DONG WON 530	2026-06-18/ 2026-06-19	유류 및 하역	TIMARU
JAICO LTD	PACINUI	2026-06-22/ 2026-06-23	유류 및 하역	DUNEDIN
JAICO LTD	FORTUNUI	2026-06-23/ 2026-06-24	유류 및 하역	DUNEDIN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07.01	Z	1.117USD/L	MGO Dunedin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SQUID [GREEN]	3L/2L/L/M/2M/S/2S	4,750/5,150/5,050/4,900/4,700/3,750/ 2,350 USD/MT
SLIVER WAREHOU [DRE]	2L/L/M/2M/S/2S	5,200/5,100/4,500/-/4,000/- USD/MT
FROSTFISH [DRE]	3L/2L/L/M/2M/S/2S	3,700/3,700/3,700/-/-/-/- USD/MT

라. 해양·수산업 동향

□ 뉴질랜드 수산물 수출 3% 감소 및 2026~2028년 정체 전망

○ 뉴질랜드 1차산업부(MPI)의 Situation and Outlook for Primary Industries 전망에 따르면, 2026년 6월 30일 종료 회계연도 기준 수산물

수출액은 약 21.5억 뉴질랜드달러로 집계되어 전년도 22.24억 달러 대비 약 3% 감소하였음. 이는 4년 연속 이어지던 성장세가 처음으로 꺾인 것으로, MPI는 수출가격 약세, 국제시장 경쟁 심화, 소비 위축, 글로벌 공급망 교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연료비 및 해상운임 상승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였음. 아울러 2026/27 및 2027/28 회계연도에도 수출액이 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정체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봄. 세부적으로는 양식 연어의 수익성 둔화, 홍합 종패(spat) 공급 부족, 굴 등 패류의 어획 제약이 주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홍합 수출액은 야생 종패 부족으로 단기적으로 약 15% 감소하여 3.5억 달러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다만 MPI는 생산 제약이 완화되고 시장 여건이 개선되는 2028/29 회계연도부터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노스랜드(Northland) 지역을 향후 회복을 견인할 핵심 지역으로 지목하였음.

출처: NZ Herald, 「Seafood exports dip 3% as Northland eyed to drive recovery」, 2026.06 / MPI, 「Situation and Outlook for Primary Industries 2026」

□ 제11회 Seafood Stars Awards 개최 및 쿼터관리제도(QMS) 40주년 기념 (호재)

○ 뉴질랜드 수산업계는 2026년 5월 26~27일 웰링턴 Tākina에서 Realising the Vision을 주제로 2026 Seafood Conference를 개최하였음. 올해 컨퍼런스는 1986년 도입되어 40주년을 맞은 쿼터관리제도(QMS・Quota Management System)의 성과를 되짚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지난 40년간 축적된 과학적・행정적・기술적 발전을 조명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이라는 산업의 비전을 재확인하였음. 같은 기간 개최된 제11회 Seafood Stars Awards에서는 5개 부문에 걸쳐 총 6인 및 기업이 수상하였음. 미래적응상(Future Adaptation)은 경량 어구, 선상 카메라, 전자 모니터링 도입 등 지속가능한 어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Moana New Zealand가 수상하였으며, 젊은성취상(Young Achiever)은 바닷새 혼획 저감 및 과학 연구에 기여한 Leigh Fish의 Jake Dikstaal에게 돌아갔음. 여성수산인상(WISA)은 쿼터 중개업체 Finestkind를 일군 Donna Wells가 수상하였으며,

홍보상(Telling Our Story)은 산업 대변인으로 활동해 온 Sealord 선장 Rex Chapman에게 수여되었음. 공로상(Life Membership)은 록랍스터 자원관리에 기여한 Dr Paul Breen과 30여 년간 QMS의 과학적 토대를 다진 Dr Pamela Mace 등 2인에게 수여되었음. 이번 행사는 자원 지속가능성과 과학 기반 관리에 대한 뉴질랜드 수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을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됨.
출처: Seafood New Zealand, 「Recognising the People Behind Our Vision: Sustainability and Science Star at 2026 Seafood Awards」, 2026.06.02

◈ 8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JAICO LTD	HAPPINUI	2026-07-06/	하역 및 연간수리	DUNEDIN
DW NEW ZEALAND LTD.	DONG WON 519	2026-07-06/ 2026-07-07	유류 및 하역	TIMARU
DW NEW ZEALAND LTD.	DONG WON 530	2026-07-08/ 2026-07-09	유류 및 하역	TIMARU
JAICO LTD	PACINUI	2026-07-14/ 2026-07-15	유류 및 하역	NELSON
JAICO LTD	FORTUNUI	2026-07-16/ 2026-07-17	유류 및 하역	DUNEDIN
DW NEW ZEALAND LTD.	DONG WON 530	2026-07-29/ 2026-07-30	유류 및 하역	TIMARU
DW NEW ZEALAND LTD.	DONG WON 519	2026-07-30/ 2026-07-31	유류 및 하역	TIMARU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07.29	Z	1.511 USD/L	MGO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HOKI [HGT]	2L/L/M/S	2,900/2,900/2,600/2,350 USD/MT

라. 해양·수산업 동향

□ 2026년 10월 어획한도(TAC) 조정 검토 - 18개 어종 대상, 상업적 파급 효과 주목

○ 뉴질랜드 수산청(Fisheries New Zealand)은 2026년 10월 1일 시행을 목표로 18개 어종의 총허용어획량(TAC) 및 초과어획부과금(deemed value) 조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6월 11일부터 7월 24일까지 진행함. 자원량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된 도미(SNA 2), 전갱이류(TRE 2), 젬피시(SKI 3), 고등어(EMA 7) 등은 어획한도 상향이 제안된 반면, 타라키히, 링(LIN 1·7), 스타게이저(STA 7), 전복(pāua) 등은 하향 조정이 제안됨. 특히 링(LIN 7)은 자원량이 목표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평가돼 어획한도 감축이 제안됨에 따라 심해 트롤업계의 조업량과 수출 물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Seafood New Zealand는 이번 조정안이 과학적 자원평가를 바탕으로 어종별 자원상태에 따라 어획한도를 조정하는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지 입장을 밝힘. 최종 조정안은 10월 새 조업연도 시작 전에 확정·발표될 예정임.

출처: MPI(뉴질랜드 제1차산업부), “Review of fishery sustainability measures - October 2026 round“, 2026.07

□ 수산법 개정안 총선 이후로 연기 - 저인망(bottom trawling) 규제 논쟁 지속

○ 상업어업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수산법 개정안(Fisheries Amendment Bill) 처리가 총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수산업계의 규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저인망 어업은 2024/25년 기준 뉴질랜드 상업 어획량의 약 3분의 2인 약 22.4만 톤을 차지하고, 연간 약 20억 뉴질랜드달러의 수출 수익을 창출하는 주요 어법으로, 향후 개정안의 처리 방향에 따라 호키·링 등 주요 수출 어종의 조업 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한편 해양과학계에서는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저인망 금지구역을 현재 약 15%에서 50%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이 제기되고 있으며, 수산업계는 저인망 어업이 주요 수출 어종의 생산 기반이라는 점을 들어 광범위한

규제 확대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이에 따라 총선 이후 수산법 개정안이 재추진될 경우 저인망 어업의 경제적 기여와 해양환경 보호 필요성을 둘러싼 규제 수준 및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임.

출처: The Spinoff, “With contentious fisheries reforms on hold, should NZ rethink bottom trawling?“, 2026.07.27

□ 오타고반도 자망(set net) 어업 영구 금지 확정 - 호이호(노랑눈펭귄) 보호 조치

○ 해양수산부 장관 Shane Jones는 멸종위기종 호이호(노랑눈펭귄) 보호를 위해 남섬 오타고반도 주변 수역의 자망 어업을 2026년 9월 16일부터 영구 금지한다고 7월 28일 발표함. 약 1년간 시행된 긴급 임시 금어 조치를 상시 규제로 전환한 것으로, 북부 호이호 개체군에 대해서는 어획관련폐사한도(FRML)를 도입해 연간 폐사 상한을 4마리로 설정하였음. 한도에 근접할 경우 추가 협의 없이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 개체군 보호를 강화한 것이 특징임. 업계단체 Seafood New Zealand는 임시 조치 이후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환영하면서도, 자체 모델링 결과 연간 6마리까지는 지속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자망 어업은 최근 수년간 호이호 폐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오타고반도 인근 연안 자망 어업자들의 조업 구역 및 어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됨.

출처: NewsWire/RNZ, “Set net fishing ban around the Otago Peninsula made permanent to protect yellow-eyed penguins“, 2026.07.29

◈ 9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JAICO LTD	PACINUI	2026-08-03/ 2026-08-04	유류 및 하역	NELSON
JAICO LTD	FORTUNUI	2026-08-04/ 2026-08-05	유류 및 하역	NELSON
DW NEW ZEALAND LTD.	DONG WON 530	2026-08-18/ 2026-08-19	유류 및 하역	TIMARU
JAICO LTD	PACINUI	2026-08-21/ 2026-08-22	유류 및 하역	NELSON
DW NEW ZEALAND LTD.	DONG WON 519	2026-08-24/ 2026-08-25	유류 및 하역	TIMARU
JAICO LTD	FORTUNUI	2026-08-24/ 2026-08-25	유류 및 하역	NELSON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09.02	Z	1.467 USD/L	MGO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HOKI [HGT]	2L/L/M/S	3,600/3,600/3,350/3,150 USD/MT

라. 해양·수산업 동향

□ 정부, 어업관리 규제 중복 해소 방안 발표 - 업계 환영

ㅇ 뉴질랜드 정부는 어업 및 수산자원 관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council)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규제 중복을 해소하고 관리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발표함. Shane Jones 장관은 이번 조치가 규제체계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업계단체 Seafood New Zealand도 어업법(Fisheries Act)에 따른 일관된 국가 관리체계를 지지하며 지방정부의 규제 부담과 중복·상충 규정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단일

국가 어업관리체계는 상업·레저·관습 어업 전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선사의 조업계획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출처: Seafood New Zealand, “Seafood sector welcomes proposal to remove legislative duplication on fisheries management“, 2026.08.20

□ 스내퍼 방류폐사 연구 발표 - 레저어업 관리 강화 논의 점화

○ 뉴질랜드 수산청(Fisheries New Zealand)은 스내퍼(SNA 1) 자원에 대한 연구 결과, 레저어업으로 어획된 스내퍼의 50% 이상이 체장 미달로 방류되며 이 중 연간 약 250톤이 방류 후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 이 가운데 124톤은 하우라키만(Hauraki Gulf)의 개인 선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반면 어획량을 전량 보고하는 상업어업의 미달체 비율은 약 2% 수준으로, 그동안 정량화되지 않았던 레저어업이 어린 스내퍼 폐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이 수치로 확인됨. 이에 연구진은 레저 조업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모든 어업활동에 대한 가시성 확보가 자원관리의 전제라고 지적했으며, 향후 레저어업 보고의무 강화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상업어업과의 어획배분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출처: Seafood New Zealand, “Fisheries NZ snapper study exposes scale of recreational discard and mortality“, 2026.08.07

□ 스튜어트섬 대규모 연어양식장(Hananui) 승인 - 뉴질랜드 연어 생산량 두 배 규모

○ 뉴질랜드 정부는 신속승인(Fast-track) 절차를 통해 2026년 8월 10일 스튜어트섬(Stewart Island) 해역의 Hananui 대규모 연어양식 사업을 승인함. 독립 전문가 패널의 심사를 거쳐 약 5개월 만에 승인 결정이 내려졌으며, 2019년 자원관리법(RMA)에 따른 최초 신청 이후 약 7년 만에 사업 추진이 확정됨. 동 사업은 2020년 코로나19 신속승인 절차로 재신청됐으나 2023년 8월 한 차례 반려된 바 있음. 승인된 양식 규모는 연간 14,400톤으로, 연간 3억1,000만 달러 이상의 매출과 사우스랜드 지역에서 약 415~480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됨. Shane Jones 장관은 이번 사업의 생산량이 2025~2026년 뉴질랜드

전체 연어양식장 생산량에 육박하는 규모라며, 신속승인을 통해 사업 추진을 앞당기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으며, Chris Bishop 장관도 사업 승인까지 약 7년이 소요됐다고 언급함. 이번 대규모 양식장 승인으로 뉴질랜드의 연어 생산기반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향후 사우스랜드 및 남섬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가공・저장・냉동・물류 등 연관 산업의 인프라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출처: Inside Government NZ, “Major Stewart Island salmon farm approved“, 2026.08.10

9. 모리셔스

◈ 7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FRANCAISE DU THON OCEANIQUE - CONCARNEAU (FRANCE)	AVEL VAD (France Flag)	2026-06-21/	하역	포트루이스 (CNOI)
Compañía Internacional de Pesca y Derivados, S.A. (INPESCA) - BERMEO SPAIN	TXORI ARGI (Spanish Flag)	2026-04-18/	상가수리	포트루이스 (CNOI)
Compañía Internacional de Pesca y Derivados, S.A. (INPESCA) - BERMEO SPAIN	TXORI GORRI (Kenyan Flag)	2026-04-20/	상가수리	포트루이스 (CNOI)
ALBACORA S.A - MADRID BERMEO C/O ALBA FISHING MU (SPAIN)	ALBACAN (Mauritian Flag)	2026-06-11/	하역	포트루이스 (CNOI)
CFTO - COMPAGNIE FRANCAISE DE THON OCEANIQUE (FRANCE)	PENDRUC (French Flag)	2026-06-07/	상가수리	포트루이스 (CNOI)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 07. 09.	ENGEN	1.14 USD/L	MGO	

다. 기타 동향

□ IOTC 어업규제 및 보존관리 강화

○ IOTC는 2026년 국가보고서 제출 의무를 재공지하고, 5월 제30차 연례회의에서 채택된 보존관리조치(CMMs)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등 인도양 참치자원 관리 및 규제 이행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망선·연승선·운반선 등은 IOTC 등록, 어획량 및 전재보고, VMS, 옵서버 관련 규정을 최신 기준에 맞춰 관리할 필요가 있음. 특히 황다랑어는 자원 회복 신호에도 불구하고 과잉어획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어획한도, FAD 사용 및 조업·보고 규정 등의 추가 관리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IUU 어선 감시 및 관련 선박 목록 관리가 강화되고 있어 어획물의 출처 및 전재 이력에 대한 증빙 관리도 중요해질 전망임.

□ 전자감시·어획보고 등 수산관리 디지털화

○ IOTC는 전자감시시스템(EMS), 전자조업일지(E-logbook), VMS 등을 활용한 수산관리 체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조업활동과 어획량을 전자자료를 통해 실시간·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이 강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선박에서는 어종별 어획량, 조업 위치·일자, FAD 및 부수어획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VMS 신호 누락이나 장비 고장 등에 대비한 점검 및 기록관리가 필요함. 향후 승선옵서버를 보완하는 전자감시 활용이 확대될 경우 영상자료 보관 및 제출 등 선사의 관리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단순히 조업 자체보다 조업활동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항만국 통제 및 조업·입항 관리 강화

○ IUU 어업 감시와 VMS·어획보고 체계가 강화되면서 항만국 통제(Port State Control) 역시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주요 인도양 항만 입항 시 선박 등록 및 조업허가, IOTC 관련 번호, 어획증명·전재증명, 입항·하역 기록 및 옵서버 관련 서류 등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운반선·냉동운반선은 어획물의

원산지와 전재 이력을 명확히 증빙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자료 미비 시 선박 검사뿐만 아니라 하역·수출 및 거래 과정에서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모리셔스 EEZ 조업과 관련해서는 EU-모리셔스 어업협정에 따른 선박·옵서버 비용 등도 조업비용 산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모리셔스 및 서남인도양 수산·해양협력 확대

○ 모리셔스는 2026년 Ocean Week를 통해 지속가능한 블루이코노미와 수산업·해양산업 발전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는 등 수산·해양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수산가공 및 수출, 냉동물류, 선박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Port Louis의 인도양 수산·물류 허브 역할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FAO 산하 SWIOFC를 중심으로 모리셔스·세이셸·마다가스카르·코모로 등 서남인도양 국가 간 수산자원 관리와 자료공유, IUU 어업 대응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인도양 참치업계는 개별 연안국의 조업허가뿐만 아니라 IOTC 및 지역 수산협력체의 관리기준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8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DONGWON INDUSTRIES CO LTD- REP OF KOREA	BLUE OCEAN (Korean Flag)	2026-07-22/	하역, 상가수리	포트루이스 (CNOI)
CFTO - COMPAGNIE FRANCAISE DE THON OCEANIQUE (FRANCE)	PENDRUC (French Flag)	2026-07-06/	상가수리	포트루이스 (CNOI)
FRANCAISE DU THON OCEANIQUE - CONCARNEAU (FRANCE)	AVEL VAD (France Flag)	2026-06-21/	상가수리	포트루이스 (CNOI)
: SK SHIPHOLDING S.A.	ORANGE SEA (Bahamas Flag)	2026-07-14/	하역	포트루이스 (CNOI)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08.07	ENGEN	1.14 USD/L	MGO	

다. 기타 동향

□ EU-세이셸 참치 조업협정 갱신

○ 2026년 7월 27일 EU와 세이셸은 4년간 적용되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수산업 파트너십 협정(Sustainable Fisheries Partnership Agreement) 이행 의정서에 서명하였음. 이에 따라 EU 선박은 세이셸 수역에서 연간 최대 5.5만 톤의 참치 및 회유성 어종을 어획할 수 있으며, 최대 30척의 선망선과 8척의 연승선이 조업할 수 있게 됨. 기존 의정서가 2026년 2월 만료되면서 일시 중단됐던 EU 선박의 세이셸 수역 조업이 재개되는 것으로, 정식 발효를 위해 양측의 비준 절차가 남아 있음. EU는 4년간 세이셸에 총 2,300만 유로를 재정 지원하며, 이 중 300만 유로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별도로 배정됨. EU 선주들은 어획량 기준 톤당 90유로의 라이선스·어획 관련 비용과 환경관리 및 해양생태 관찰을 위한 별도 부담금을 납부함. 이번 협정으로 서인도양 참치산업의 주요 거점인 Victoria항을 중심으로 조업선의 입항·하역, 냉동·가공, 선박 보급·수리 등 관련 활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세이셸 수역 내 조업 재개는 Mauritius·Madagascar·Réunion 등 인접 지역의 선박 정비, 선용품·물류 및 승무원 교대 수요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Port Louis에서는 세이셸 조업 라이선스 보유 선박의 입출항 및 Victoria-Port Louis 간 정비·보급 수요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IOTC에 환경단체 참여 확대

○ 2026년 7월 13일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7월 14일 CORDIO East Africa가 각각 IOTC 옵서버 지위를 신청했으며, IOTC Circular 2026-29·30을 통해 관련 내용이 공지되었음.

옵서버는 직접 어획쿼터를 결정하는 주체는 아니지만, 최근 IOTC 논의에서 단순한 참치 어획량 관리에서 벗어나 혼획(Bycatch), 상어류·해양포유류 보호, FAD 관리, 해양생태계 및 어업 투명성 등 환경·생태계 관련 의제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이에 따라 향후 한국 선망선 역시 참치 어획량뿐만 아니라 FAD 등록·관리, 선박 위치정보, 혼획 처리 및 환경 관련 보고 등 비어획 분야의 관리·보고 요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다만 이번 옵서버 신청 자체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며, IOTC 내 환경·생태계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확대되는 흐름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 모리셔스-세이셸, 396,000㎢ 대륙붕 공동관리

○ 2026년 7월 29일 세이셸에서 제30차 Seychelles-Mauritius Joint Commission of the Extended Continental Shelf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모리셔스 Cabinet은 8월 7일 회의 결과를 공식 보고받았음. 양국은 Mascarene Plateau 지역의 약 39.6만㎢ 규모 Extended Continental Shelf를 공동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이 지역의 해저(seabed) 및 지하(subsoil) 천연자원과 관련 활동에 대한 정책·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함. Extended Continental Shelf는 일반적인 EEZ와 달리 해저 및 지하자원에 대한 관할권이 핵심으로, 양국이 해당 해역의 수산자원을 공동으로 어획·관리한다는 의미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음. 향후 해저광물, 해저탐사·연구, 해양환경 보호 등이 주요 협력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공동위원회 운영은 모리셔스와 세이셸이 인도양 해양자원의 공동 관리 및 해양 거버넌스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모리셔스 Blue Economy 투자 본격 확대

○ 모리셔스 Cabinet은 African SIDS Blue Economy Project와 관련해 최대 63.9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협정 체결을 승인하였음. 해당 사업은 UNDP와 Global Water Partnership Southern Africa가 추진하며, 모리셔스·세이셸·코모로 등 6개 아프리카 도서국이 참여하고 총 사업 규모는 약 900만 달러임. 모리셔스에서는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및 지역 소규모 어민의 부가가치 창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연안 소규모 어민의 원해 조업 역량을 강화하고 어획물의 가공·유통 등을 통해 수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이에 따라 향후 어선 장비, 냉동·제빙시설, 냉동창고, 어구·해상 안전장비, 수산물 가공설비 및 소형선박 정비 등 관련 산업의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모리셔스가 Blue Economy를 기반으로 단순한 외국어선의 입항·환적 거점을 넘어 수산가공, 물류, 선박서비스 등 인도양 해양산업의 서비스·가공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음.

◈ 9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INDIAN OCEAN REEFERS LTD	AFFINIS (Mauritian Flag)	2026-09-08/	하역	포트루이스 (CNOI)
SALGIR SHIPPING LTD	SALGIR (Panama Flag)	2026-08-09/	하역	포트루이스 (CNOI)
FRANCAISE DU THON OCEANIQUE - CONCARNEAU (FRANCE)	AVEL VAD (France Flag)	2026-06-21/	상가수리	포트루이스 (CNOI)
Naviera Galdar S.A.	IZAR ARGIA (Spanish Flag)	2026-08-18/	하역	포트루이스 (CNOI)
DONGWON INDUSTRIES CO LTD-REP OF KOREA	BLUE OCEAN (Korean Flag)	2026-07-22/ 2026-08-25	하역, 상가수리	포트루이스 (CNOI)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09.08.	ENGEN	1.28 USD/L	MGO	

다. 기타동향

□ 화물취급공사 (CHC) 포트루이스 항만 27억 루피 투자

ㅇ 화물 취급 공사(CHC)는 생산 능력 및 작업 효율성 제고와 포트루이스 항구의 환적 물량 확대를 위해 27억 루피 규모의 신규 화물 취급 장비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해당 계약은 중국 기업 HHMC가 수주했으며, 2026년 9월 7일 포트루이스에서 계약이 체결됨. 신규 갠트리 크레인은 2028년 1월부터 가동될 예정으로, 이번 투자는 항만 인프라 현대화와 함께 증가하는 화물 물동량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 처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됨.

□ 모리셔스 어획량 5,000톤 → 15,000톤 확대 추진

ㅇ 모리셔스 정부는 향후 3년 내 수산물 생산량을 현재 약 5,000톤에서 15,000톤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연안어업, 반산업어업, 산업어업, 참치어업 및 양식업을 중심으로 생산 기반과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임.

ㅇ 연안어업 및 어선 지원 현재 약 2,500명의 연안어민이 등록되어 있으며, 정부는 석호 자원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해 어류 집결시설 주변 등 어획 가능성이 높은 해역으로의 조업 확대를 유도하고 있음. 이를 위해 국제 파트너의 지원으로 약 3,000만 루피를 투입해 어민 교육 및 항해 장비를 강화할 예정임. 또한 고장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외부 선박 엔진 교체를 위해 5만 루피의 보조금도 지원할 계획임. 보트 지원의 핵심 사업인 카노트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모리셔스개발은행과 함께 추진되고 있으며, 등록 어민이 7~12m 규모의 유리섬유 보트를 구매할 경우 보트와 엔진 비용의 50%, 최대 30만 루피를 정부가 지원함. 2015년 이후 약 250명의 어민에게 총 5,300만 루피의 보조금이 지급됐으며, 2026~27년에는 약 80척의 신규 보트 도입을 위해 2,400만 루피를 지원할 예정임. 이를 통해 현재 약 800톤 수준인 소규모 어업 생산량이 약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반산업어업은 두 번째 주요 생산 확대 축으로, 현재 45척의 선박이 연간 약 1,400톤을 생산하고 있음. 정부는 2027년까지

선단을 65척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12척이 건조 중이고 2027~28 회계연도에 8척을 추가 도입할 예정임. 2026~27년 관련 사업에 4,800만 루피가 배정됐음. 신규 선박의 연간 평균 어획량을 약 42톤으로 가정할 경우, 추가 도입되는 선박을 통해 약 840톤의 추가 생산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선박 한 척당 건조비는 약 1,200만 루피 수준임.

ㅇ 정부는 2015년 중단된 강둑 지역의 산업어업 재개도 추진하고 있음. 해당 지역에서는 과거 약 6척의 선박이 운항하며 상당한 규모의 어획량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짐. 산업어업 재개를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와 모리셔스 내 선박 등록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참치어업 역시 생산 확대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현재 외국 선박들이 모리셔스 항구에서 연간 약 1만 톤의 참치를 하역하고 있으며, 정부는 5척의 준산업용 롱라이너로 구성된 국내 참치 선단을 구축해 연간 약 1,500톤의 추가 생산량을 확보할 계획임. 투자자 유치를 위해 세제 및 규제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하고 있음.

ㅇ 모리셔스 EEZ에서 발생하는 부수어획량은 연간 약 2,500톤으로 추정되며,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현지 판매가격을 국제시장 가격에 가깝게 조정하고 어획물의 국내 하역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양식업의 경우 현재 해양 생산량은 약 2,000톤이며 이 가운데 약 90%가 수출되고 있어, 정부는 야생 수산자원에 대한 부담을 높이지 않으면서 국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양식 생산물의 국내 유통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앨비언 어업연구센터에는 양식 및 방류사업에 필요한 치어 생산 확대를 위해 총 4,100만 루피 규모의 대형 부화장 2곳이 건설 중이며, 모리셔스 내 확인된 21개 바라쇼 중 9곳을 양식업 용도로 배정하고 이 중 3곳은 해삼·게·굴 양식 사업자에게 이미 배정한 상태로 나머지 6곳은 신규 양식 프로젝트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바골드 지역에서는 약 3억 루피를 투입해 연간 약 1,000톤의 붉은돔 생산을 추진하는 등, 모리셔스는 부수어획물의 국내 활용 확대와 양식 생산기반 확충을 병행해 수산물 국내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생산 확대와 함께 어획물의 수용·보관·가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도 추진되고 있음. 정부는 신규 어항과 통합 해산물 가공센터 구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에는 어시장, 냉장시설, 제빙공장, 가공시설, 폐기물 회수시설, 물류서비스 및 수출터미널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아울러 2026년 어업(전자보고시스템)(개정) 규정을 승인해 전자적 어획량 보고와 허가 선박 추적체계를 강화했으며, 장비에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정부가 지정한 항구에서 수리 또는 교체하도록 하고, 장비가 정상적으로 복구·점검되기 전에는 출항이나 조업 지속을 제한하도록 함. 해상에서 장비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업 모니터링센터에 신고하고 수동으로 어획기록을 작성하는 한편, 시스템 복구 전까지 일일 데이터를 이메일로 제출하도록 했으며, 전자보고 장비를 통해 어획 데이터뿐만 아니라 선박 위치정보도 전송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제도 개선은 어획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모니터링 시스템 조작 가능성을 줄이는 동시에, 모리셔스 해역 및 인도양 지역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다만 처벌 관련 조항은 보다 엄격한 제재를 규정한 기존 어업법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개정 규정에서 삭제됨. 종합하면, 모리셔스 정부는 어선 및 어민 지원, 반산업·산업어업 선단 확대, 참치어업 개발, 양식 및 부수어획 활용, 수산 인프라 확충과 전자적 어업관리체계 구축을 병행해 3년 내 수산물 생산량을 5,000톤에서 15,000톤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임.

□ 세이셸 수산협정 의정서

○ 세이셸은 유럽연합(EU)과 새로운 지속가능 수산 파트너십 협정(SFPA) 의정서를 체결함에 따라 연간 약 70만 5,000유로의 추가 수입을 확보하게 됐음. 신규 의정서는 2026년 7월 27일 브뤼셀에서 체결됐으며 향후 4년간 유효함. 이번 협정에 따른 연간 재정지원 규모는 기존 957만 5,000유로에서 1,028만 유로로 7.36% 증가했으며, 특히 EU의 세이셸 EEZ 조업 접근료는 연간 250만 유로에서 275만 유로로, 수산업 발전을 위한 부문별 지원금은 280만 유로에서 300만 유로로 각각 증액됨. 세이셸 정부는 협정기간을 기존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2년 후 중간검토가 가능하도록 한 점도

주요 성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협정조건과 재정 지원 규모 등을 보다 이른 시점에 재검토할 수 있게 됐음.

- ㅇ 새 의정서에 따라 세이셸 EEZ에서는 최대 EU 선망선 30척과 연승어선 8척이 조업할 수 있으며, 인도양에서 활동하는 EU 어선은 주로 스페인과 프랑스 국적 선박으로 구성되어 있음. 협정상 연간 기준 어획량(Reference Catch)은 참치 및 기타 고도회유성 어종 5만 5,000톤으로 설정됐으나, 이는 매년 실제로 5만 5,000톤을 의무적으로 어획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 평균 어획실적 등을 바탕으로 설정한 기준치임. 기존 의정서는 2026년 2월 만료됐으며, 이후 신규 의정서가 체결되기 전까지 EU 선박은 세이셸 EEZ 내에서 조업할 수 없었음. 다만 스페인과 프랑스 수산업체 소속 선박들은 공해에서 조업을 이어가는 한편, Port Victoria를 연료 공급(Bunkering)과 어획물 하역 등의 목적으로 계속 이용했으며, 신규 협정 체결 이후 EU 선사들의 세이셸 EEZ 조업 재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세이셸 정부에 따르면 현재 EU 선박 15척이 세이셸 EEZ 내 조업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짐.
- ㅇ 세이셸 정부는 기준 어획량을 5만 5,000톤으로 설정한 것이 참치 자원 고갈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참치는 고도회유성 어종으로 특정 국가의 EEZ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도양 전역을 이동하기 때문에, 자원 관리는 개별 국가가 아닌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설명임. 또한 세이셸 정부는 해당 기준량이 실제 어획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어획실적을 바탕으로 한 참고 기준(Reference Catch)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따라서 협정의 어획 기준량 증가가 곧바로 실제 어획량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
- ㅇ 신규 의정서에 따른 첫 번째 EU-세이셸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회의는 9월 개최될 예정임. 협정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며, EU 어선에 전자카메라 감시 시스템(Electronic Camera Surveillance)을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임. 협정은 EU 선박의 세이셸 EEZ 조업 재개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Port Victoria를 중심으로 한 연료 공급, 어획물 하역 등 참치선단 관련 항만·수산업 활동의 회복 및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참고 명예해양수산관 현황 및 연락처

담당지역		성 명	연 락 처	주 소
남태평양 도서국	사모아 (-1일+4시간)	 허성림 ('55년생)	Tel. +1-684-699-6545 Mobile +1-684-733-4567 e-mail hhsamsung@yahoo.com 임 기 '25.10.15. ~ '27.10.14.	P.O.BOX 3170, Pago, pago American Samoa 96799
	피 지 (+3시간)	 김종태 ('68년생)	Tel. +679-330-7188 Mobile +679-999-2523 FAX +679-331-1705 e-mail ckpfj@naver.com 임 기 '26.06.01. ~ '28.05.31.	44 Pathik Namadi Heights, Suva, Fiji
	파푸아뉴기니 (+1시간)	 정승화 ('65년생)	Tel. +675-321-8137 Mobile +675-7928-8888 FAX +675-321-4224 e-mail jc651016@gmail.com 임 기 '25.05.10. ~ '27.05.09.	P.O.Box 619, Gordons, N.C.D., Papau New Guinea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12시간)	 이상우 ('75년생)	Tel. +54-223-495-0712 /493-4934 Mobile +54-9-223-546-3919 e-mail kargeexport@gmail.com 임 기 '26.06.01. ~ '28.05.31.	Marcos Sastre 1660 Mar del plata Bs.As Argentina c.p 7600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2시간)	 박상천 ('65년생)	Tel. +62-21-2287-4165 Mobile +62-821-2534-3214 e-mail scpark@hyundaimovex.co.id 임 기 '25.10.15. ~ '27.10.14.	Rukan Avenue Nomor 8-135 Perumahan Jakarta Garden City Cakung Timur Jakarta 13910 Indonesia
아프리카·대양주	가 나 (-9시간)	 이윤홍 ('60년생)	Tel. +233-303-200995 Mobile +233-24-2168654 FAX +233-303-200933 e-mail skshipafrica@yahoo.com sskmarco@yahoo.com 임 기 '26.06.01. ~ '28.05.31.	HOUSE NO. RP/2/19, COMM.2, NEAR FISHERIES BLDG, PMB COMM 1, TEMA, GHANA
	세네갈 (-9시간)	 추호철 ('55년생)	Mobile +221-77-644-9694 e-mail okpechechu@gmail.com 임 기 '26.01.04. ~ '28.01.03.	431, APPT AXA, HANN MARISTE, DAKAR, Senegal
	뉴질랜드 (+3시간)	 윤정환 ('52년생)	Tel. +64-3-344-1617 Mobile +64-27-437-6210 FAX +64-3-3444-1617 e-mail seajho@xtra.co.nz 임 기 '24.08.20. ~ '26.08.19.	PO BOX 20473 Bishopdale(P.C8 543) 335 West Coast Road, Templeton,(P.C7 676)Christchurch, New Zealand
인도양	모리셔스 (-5시간)	 이동춘 ('62년생)	Tel. +230-217-1700 Mobile +10-5796-5453 e-mail kmarinelee@gmail.com 임 기 '25.10.15. ~ '27.10.14.	International Korean Marine Ltd. Albion Docks, Trou Fanfaron Port Louis, Mauritius 11230